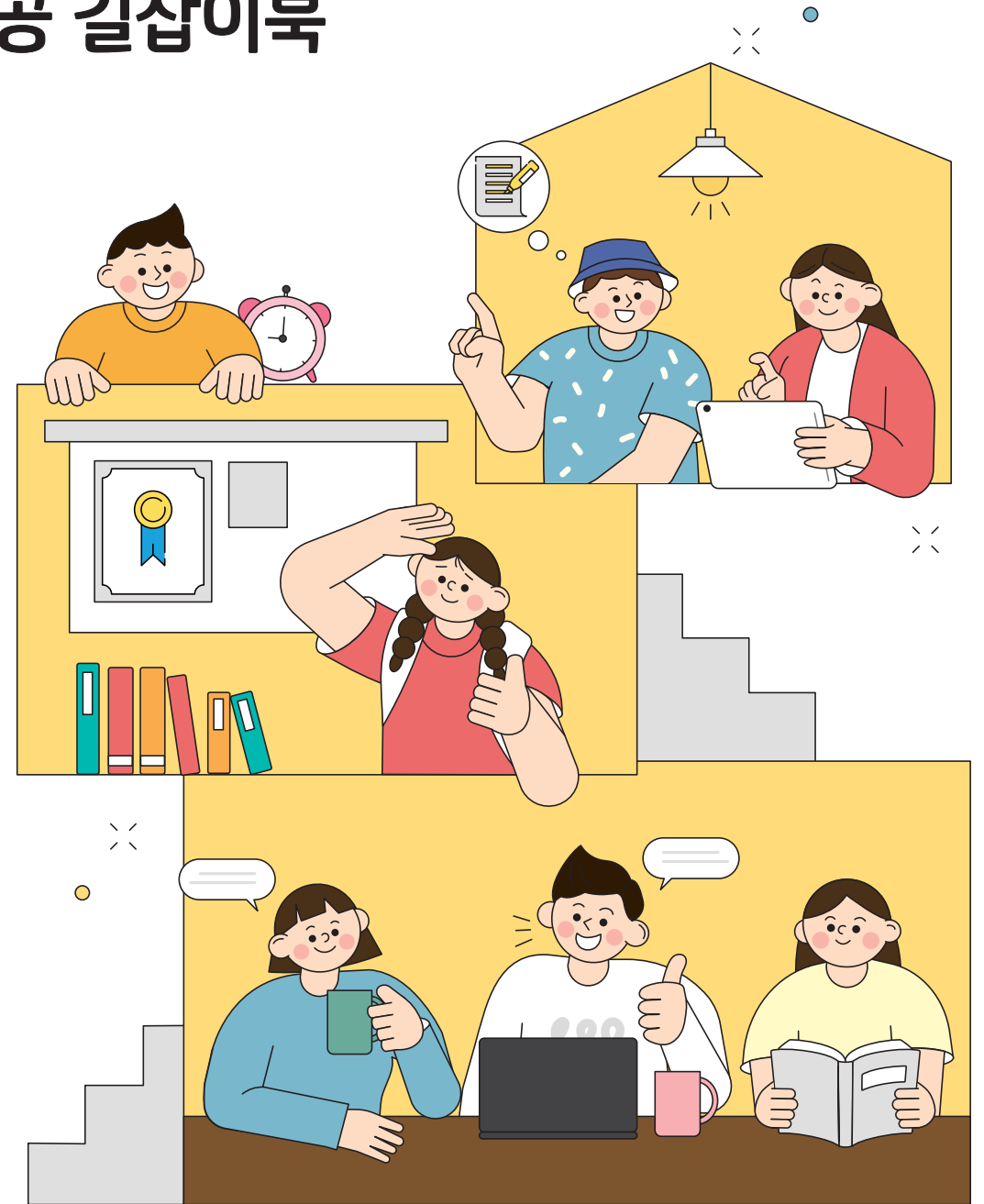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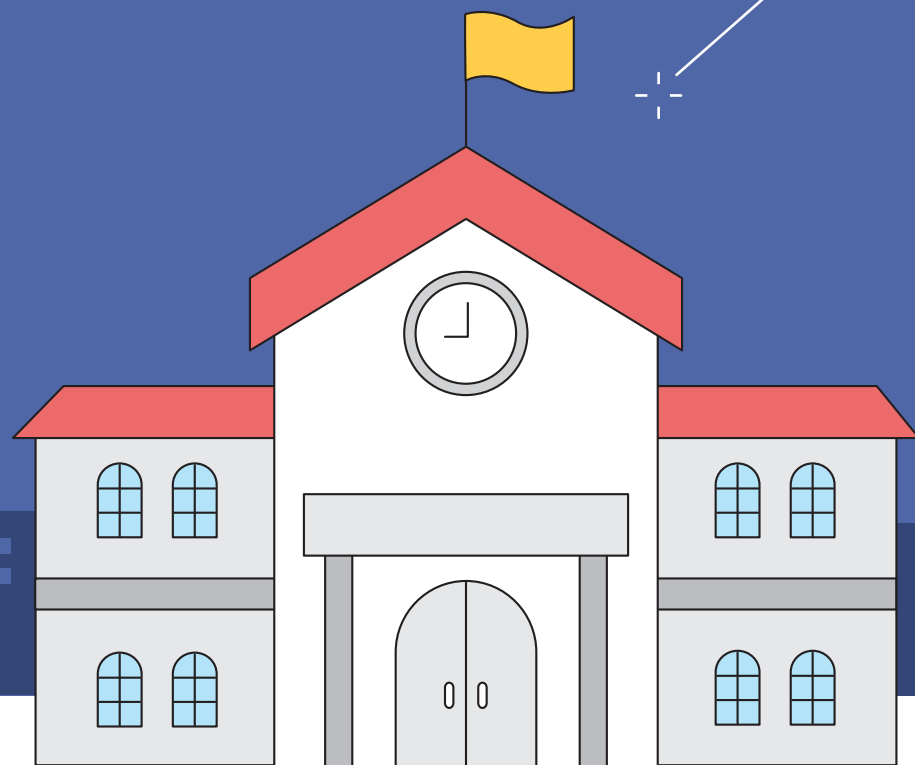
# 2022년 서울우수인재 장학생 전공 길잡이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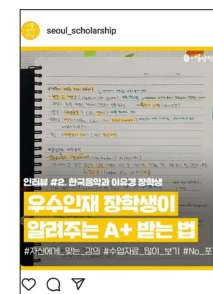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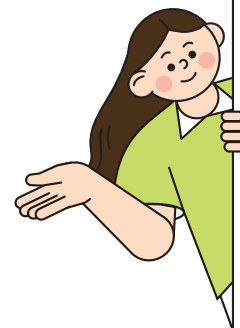
# 2022년 서울우수인재 장학생 전공 길잡이북



서울장학재단은  
미래의 서울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그리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수인재 장학생 선순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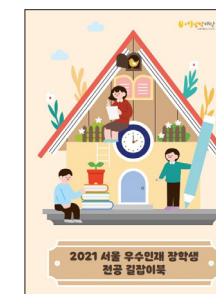
### ▶ 대학생활 꿀팁 콘텐츠

학업, 학교 주변 맛집, 그밖에 우수인재 장학생이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카드뉴스로 나누는 활동입니다.



### ▶ 전공 멘토링

진로, 진학, 그밖에 궁금한 것은 어떤 주제이든 선배 장학생이 직접 알려주는 멘토링을 통해 진로 선택을 지원합니다.



### ▶ 전공 길잡이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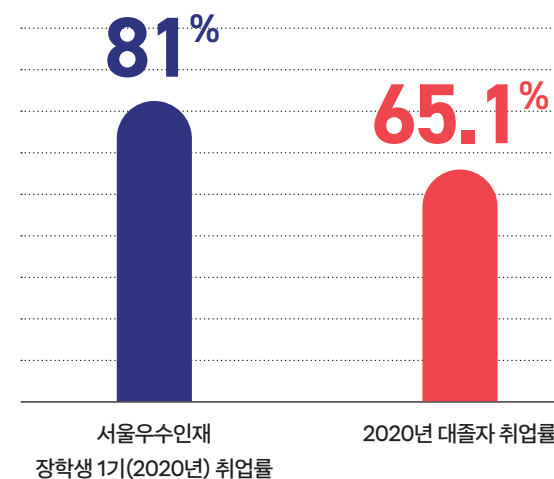
전공 선택에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고등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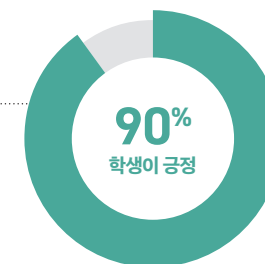
### ▶ 대학탐방

학생들이 선망하는 주요대학 캠퍼스를 돌아보고 재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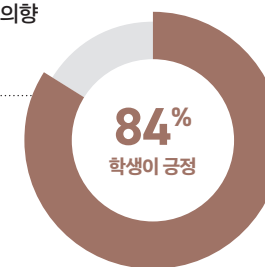
## 장학금을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현재 하고있는(준비하는)  
일의 전공 연관성



사회인 멘토 참여의향



전공분야 재능 및 학업의지를 가진 우수학생과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와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장학재단 서울우수인재 장학금 담당자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야 하는데 전공은 뭐로 해야 하고 나는 아직  
꿈을 정하지 못했는데 불안하고 걱정되지지는 않나요?

본 길잡이북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 여러분의 선배 장학생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탄생한 책입니다.

궁금한게 많은데 물어볼 곳도 없고 한곳에 정리된 것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본 길잡이북을 통해 조금이라도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원고를 썼을 선배 장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원하는 바, 목표를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꿈이 이어지는 곳, 서울장학재단



## 🔍 서울우수인재 장학금이란?



전공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학업 의지를 가진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선발해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재단의 다양한 선순환 활동인  
전공 길잡이북, 전공 멘토링, 꿀팁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 목차

### 소개

|                          |   |
|--------------------------|---|
| 2022년 서울우수인재 장학생 전공 길잡이북 | 2 |
| 우수인재 장학생 선순환 활동          | 3 |
| 인사말                      | 4 |
| 서울우수인재 장학금소개             | 5 |

### Part 1

### 인문 사회계열

|          |                                               |    |
|----------|-----------------------------------------------|----|
| 경영학과     | 당신의 경험에 힘이 되어줄 우리들의 이야기                       | 10 |
| 경제학과     | 경제학도! 너도 할 수 있어!!                             | 16 |
| 교육학과     | 교육계열학과에서 있었던 일..썰폰다                           | 22 |
| 미디어콘텐츠학과 | 신문에서 틱톡까지, 미디어콘텐츠전공                           | 30 |
| 법학과      | Legal Mind, 법학과 학생에서 법조인까지                    | 36 |
| 사회과학과    |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와 정체 편                 | 42 |
| 사회복지학과   | 다양한 학문을 접근하면서 사회복지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사회복지학과로 와라! | 48 |
| 신학과      | 신과 함께!                                        | 54 |
| 영어학과     | 여러분의 마음에 enchant를: 영어관련학과에 대한 모든 것            | 60 |
| 역사학과     | 예비 역사학도를 위한 길잡이북                              | 66 |
| 행정학과     | 홍설빔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면? 답은 행정학과!                | 72 |

###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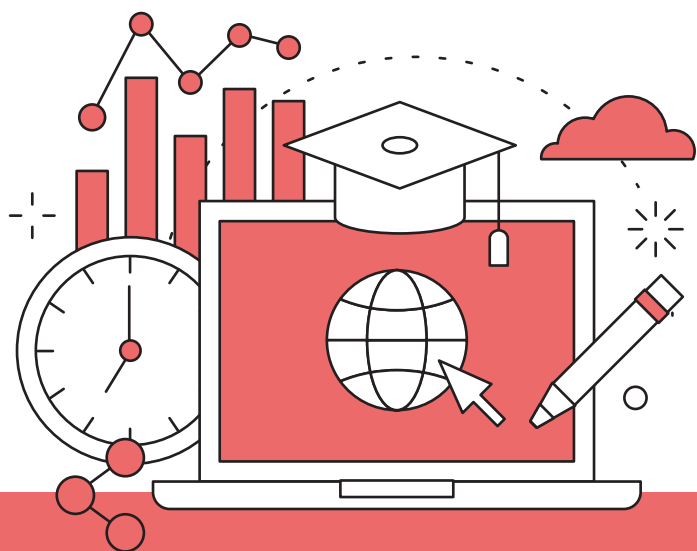
### 자연 계열

|         |                                  |     |
|---------|----------------------------------|-----|
| 간호학과    | 간호대생의 금빛 상담소                     | 78  |
| 공학과     | 공대에 대한 모든 것!                     | 84  |
| 생명공학과   | BIO와 함께 꿈 꾸는 미래                  | 90  |
| 의약학부    | 의약학부의 모든 것!                      | 96  |
| 소프트웨어학과 | 썸.. 근데 이제 컴퓨터를 결들인..? 여긴 소프트웨어.. | 104 |
| 자연과학과   | 자연과학이 궁금하다면 드루와!!!               | 110 |
|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와 모든 것!                   | 116 |

### Part 3

### 예체능 계열

|           |                                             |     |
|-----------|---------------------------------------------|-----|
| 공연학부      | 궁금한게 있다면 다 알려줄게!                            | 122 |
| 문예콘텐츠창작학과 | 전공만 22과목을 들은 4학년이 알려주는, 문예콘텐츠창작학과에 대한 모든 것! | 128 |
| 미술학부      | 유퀴즈 온 더 아트                                  | 132 |
| 음악학과      |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 음악과로 모여라!               | 138 |
| 의류학과      | 의류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의류학과로 오라!                    | 144 |
| 체육학부      | 체육대학(유도학과)를 통한 사회진출은 어떻게 될까                 | 148 |



# 01

## 경영학과

당신의 경험에 힘이 되어줄 우리들의 이야기

Part 1

인문 사회계열

## 당신의 경험에 힘이 되어줄 우리들의 이야기

▶ 진민호, 허지승, 김민교, LSY, 신지원, 하미혜, 김경민 장학생

### Q1. 경영계열 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경영계열 학과는 기업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 활동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학과입니다. 경영학과에서는 다른 과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경영 전공을 배워볼 수 있어요.

재무적 정보를 수치화하여 기록하는 회계,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글로벌 국제 시장에서의 경영활동을 다루는 국제경영, 제품생산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운영 및 물류, 사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조직, 기업의 효율적 정보관리법을 다루는 경영정보, 자본의 조달 및 운용의 총체적 과정을 다루는 재무 등 기업 의사결정 과정 속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 후 각 대학에서 지정한 전공필수 과목들을 수강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경영 분야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 Q2. 경영계열 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진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따라서 경영학 관련 진로는 몇 가지로 특정해 말하기가 어렵지만, 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하거나 전문직 시험을 통해 전문직이 됩니다. 폭넓은 경영 전반에 대학 지식을 배우는 경영학과 특성상 전공과목 자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조차도 자신이 더 잘하거나 관심이 있는 세부 전공 분야로 진출합니다.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마케터, 회계·재무에 관심이 있다면 회계사, 상법·회사법에 관심이 있다면 변호사, 전략에 관심이 있다면 컨설턴트 등이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금융공기업, 외국계 기업, 은행 등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 **국제물류학과:** 국제물류학과에서는 주로 SCM, 무역, 해상운송, 항공운송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관세사, CSCO 등의 진로를 설계합니다. 많은 학생이 물류기업, 무역회사, 항만 공사, 항공사 등의 다양한 물류·무역 분야로 진출하곤 합니다.

• **IT 금융경영학과:** IT 금융경영학과는 보험, 회계, 경제, 금융 등 경영계열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현 금융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등의 수업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기에, 실제로 학생들은 회계 분야, 보험 분야, 개발자 등 자신과 맞는 분야를 찾아 해당 분야로 진출하게 됩니다.

• **회계학과:**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회계 분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CPA(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통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CPA 시험에 합격하면 회계법인에 들어가 회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회계사보다 세무 업무를 주로 다루는 CTA(세무사) 자격시험을 통해 세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기업의 회계팀이나 자금팀에서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세무공무원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 **항공 서비스학과:** 항공 서비스학과에서는 항공사의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이며, 실전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항공사에만 얽매인 것이 아니라 호텔과 관광산업 등 서비스 관련 계열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Q3. 경영계열 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영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대기업으로의 취업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인문 사회 계열에서는 기업이 가장 원하는 전공이기도 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 관련 학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경영을 선택할 만큼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과의 단점은 깊이 있는 학문을 수학하는 전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경영이라는 학문은 실무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공부하는 실용적인 학문인 만큼, 깊이 있고 정립된 이론을 배우는 분야는 아니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Q4. 경영계열 학과 학생들이 주로 하는 교내외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교내 활동으로는 주로 동아리나, 학회 활동을 합니다. 진로와 관련된 학술 연구 동아리(혹은 학회)부터 축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 등의 여가활동 동아리까지 다양한 동아리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술 연구 동아리(혹은 학회)는 금융, 마케팅, 물류 등 같은 진로를 꿈꾸는 학우들끼리 모여 해당 분야에 관한 토론, 공모전 참여, 멘토링, 학술 행사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공모전, 서포터즈 활동,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증권사나 마케팅 관련 공모전 등 기업 혹은 공공기관 주최 공모전이 있으며, 은행, 증권사, 항공사, 관세청 등 각 기관을 알리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은 교육 봉사부터 해외 봉사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며, 본인의 진로 및 계획에 맞춰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Q5. 경영계열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대외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계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CPA(공인회계사시험)를 통한 공인회계사 자격증, 재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위험관리사 등이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경영에는 분야별 크고 작은 자격증이 많이 존재합니다. 본인의 전공 분야 및 직무를 결정하신 후에, 진로와 맞는 자격증을 검색해보시고 취득하신다면 전공 역량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큐넷’이라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외활동도 전공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광고 혹은 마케팅 공모전, 기업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마케팅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고, 금융이나 재무 분야에서는 은행에서 진행하는 서포터즈 활동이나 인턴 등을 통한 대외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 교류해보고 싶다면 연합동아리에 가입하여 대외활동을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 Q6. 경영계열 학과에서 복수전공, 부전공하면 좋은 학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로에 따라 학생마다 정말 다양한 전공계획을 갖고 있지만, 많은 학생이 복수전공하는 학과로는 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부동산학과 등이 있습니다. 경영계열 과목들과 통계학과 과목들을 수강하면 금융 전문가가 되기에 수월하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면 금융공학 혹은 SCM 데이터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지식을 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열 학과 학생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학과의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통해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언어를 추가로 전공하는 것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으며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외국어 능력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에 능숙하다면 경영자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 Q7. 경영계열 학과에 가기 위해 고등학교 때 어떤 분야를 미리 공부하면 좋을까요?

경영학은 기업의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다루는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미리 필수로 선행하여야만 하는 공부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분야의 공부보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회·경제적 이슈 및 트렌드, 뉴스에 관심을 갖고 해당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경영학과 가까워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진로와 직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와 심층분석을 진행해서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해두신다면 경영학과 진학에 큰 도움과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회계’ 관련 공부가 선행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하면 1학년 때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회계’ 분야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과 용어들을 익혀보는 것이 회계와 친해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Q8. 경영계열 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영계열 학과들은 금융, 회계, 무역,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최고의 학과라 생각합니다. 최근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며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물류 분야의 전망이 밝아졌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IT 금융 등이 크게 주목을 받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경영계열 학과에 진학해, 여러분의 꿈의 무대를 전 세계로 펼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 02

## 경제학과

경제학도! 너도 할 수 있어!!

Part 1

인문 사회계열

## 경제학도! 너도 할 수 있어!!

▶ 공민아, 김선진, 김준서, 남인영, 이윤찬, 이항규 장학생

### Q1. 경제학부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경제학부는 경제학의 기초 및 응용 분야를 균형 있게 배움으로써 경제 현실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입니다. 우선, 경제학이란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 전반에 대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제한된 자원이 생산, 소비, 분배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다루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 경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학을 바탕으로 경제학 전공, 국제통상학 전공, 통계학 전공, 농경제사회학 전공 등 다양한 세부 전공이 나뉘기도 합니다.

경제학부에 포함된 통상학과는 통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무역 법규, Incoterms, 관세법, 국제 금융론과 같은 학문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산업 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청년 무역전문가양성사업 (GTEP, Global Trade Experts incubation Program)과 수출 경진대회를 통해 무역 현장 중심의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사례연구 및 현장 실무 학습의 균형적인 배움을 통해 무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힙니다.

경제학부 계열인 농경제사회학부는 농업·농촌·농민 문제와 자원·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과학적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입니다. 세부 전공은 농업자원경제학과와 지역정보학과로 나뉘며, 주로 응용경제학을 배웁니다. 학위는 경제학과와 동일하게 경제학사로 나오게 됩니다.

### Q2. 경제학부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취업 분야를 살펴보면 경영, 회계/사무직이 30%, 금융/보험이 40%, 기타(언론계, 컨설팅 등) 25%, 공무원 5%입니다. 이 외에도 로스쿨, CPA, 행정고시, 언론고시,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이 가능한 학문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 1) 국내외 기업체와 금융회사, 언론사 등에 진출

경제학을 공부하면 각종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금융업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업종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무역, 회계, 리서치, 보험 투신운용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언론매체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 2) 정부나 각종 공공부문에 진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등을 통해 고급 공무원으로 진출하거나, 각종 공무원 시험을 통해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정부가 투자한 정부투자기관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 3) 전문직,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출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심도 있게 경제학을 공부한 이후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에 전문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에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 노무사, 계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관세사와 같은 경제전문가로서 각종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진출할 수도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 Q3. 경제학부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장점

경제학 학위를 받기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통계, 수학, 금융, 노동, 국제 등 여러 종류의 커리큘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응용된 경제학에 대해 학습할 수 있어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추후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학에선 수학을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통계학과나 공학 등 이와 복수전공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를 활용하여 더 발전된 학업 성취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과는 경영학과와 달리 과 특성상 팀플 과제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대학에 오면 대부분 팀플 과제가 있는 수업이 많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경제학과는 솔로 플레이를 주로 이루는 학과로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2) 단점

경제학과는 수학적 능력을 어느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수학을 어려워한다면 다소 수업에 따라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을 이미 배운 학생들이나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도 다소 존재하여 처음엔 어려움을 조금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학과에는 여러 커리큘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수학 능력을 요구하는 수학 커리큘럼을 타지 않는 이상 기초적인 수준의 수학 능력만으로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경제학이나 수학에 대한 기초를 잘 다져 놓는다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Q4. 경제학부에 진학하기 위해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나요?

단순히 '경제'의 기본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활동들보다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결합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과 경제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자율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관심 분야와 경제의 연관성을 찾아 보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갖는 나만의 특별한 스펙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당시 경제학부 진학을 목표로 진행했던 저의 활동 기록을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 문제, 한미FTA와 미국 멕시코의 NAFTA 분석과 같은 경제 관련 발표 및 논문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경제학부 면접 당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질문이 나왔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내 논문 작성 대회나 발표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최근 문제가 되는 경제 현안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 Q5. 경제학부에 진학하면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우선 읽기 전에 저희는 경제학부, 통상학과, 농경제사회학부 등 다양한 경제 계열을 소개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초적으로 경제원론과 경제 수학 등 고등과정에서 배운 개념을 기반으로 이론들을 우선하여 배우고, 자원배분에 관한 이론적 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행동과 시장에서 그들의 상호교류 현상에 대해 학습하는 ‘미시경제학’과 국민소득 이론에 입각한 소비·투자·저축 등의 집계량을 가지고 국민소득의 결정과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학습하는 ‘거시경제학’을 통해 경제학의 기본 토대를 다집니다. 그 후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경제학 전공, 경제 통상학 전공, 통계학 전공, 농경제사회학 전공, 농업자원경제학과, 지역정보학과 등 전공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경제 및 통상 전문가:**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국제통상론, 국제수지론, 외환정책론 등의 과목으로 국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경제이론이 실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적용되는 사인에 대해 학습합니다.

• **금융 전문가:** 화폐금융론, 계량경제학, 응용거시경제학, 금융시장론 등의 과목으로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통화 및 금융 정책과 경제전망에 대해 학습합니다.

• **기업 및 산업분석 전문가:** 노동경제학, 산업조직론, 기업금융론, 경제정책론, 도시경제학, 문화경제학, 보건의로 경제학 등의 과목을 통해 기업이나 산업과 관련된 경제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응용한 환경 및 결과에 대해 학습합니다.

• **공공정책 및 제도 전문가:** 공공경제학, 노동경제학, 조세론, 후생경제학 등의 과목을 통해 재정, 복지와 같은 공공정책과 다양한 경제제도 및 이론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 외에도 수리경제학, 경제통계학, 법경제학, 환경경제학, 농업계량경제학, 공간경제학 등과 지역개발론, 농식품브랜드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 Q6. 경제학부에 진학하면 주로 어떤 교내외 활동을 하나요?

교내 활동으로는 학술 소모임이 존재합니다. 경제와 관련된 이슈, 뉴스, 논문 등을 함께 공부하여 이를 팀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주로 경제, 시사 뉴스를 통해 매크로 경제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조원들과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를 하는 세미나를 통해 경제적 지식을 넓힙니다.

통상학과에 대표적 교내 외 활동은 지역특화청소년 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활동입니다. GTEP 활동의 주된 사업은 실제 해외 Seller의 물품을 전달받아 외국의 무역 전시회에 참가하여 Buyer에 홍보합니다. 또한 Seller의 물품을 인스타그램, Facebook, You Tube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마케팅 방법을 배우며 실제 물품 홍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B2B 계약의 프로세스를 배우며 무역과 더불어 마케팅, 계약 체결, 매출 분석과 같은 다양한 실무 업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Q7. 경제학부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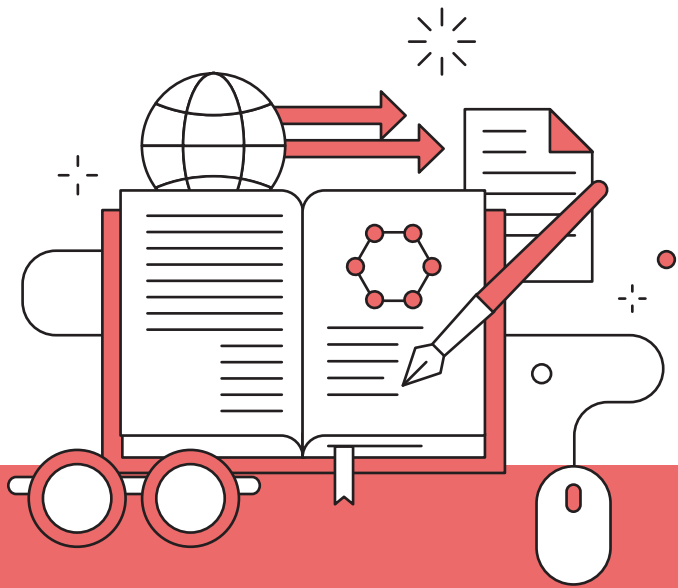
인문계열과 이과 계열의 장점을 모두 잘 살릴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 있어 정교한 논리와 계량화는 필수적이기에 수학, 통계학 등에 대한 사고가 기반이 되어 있으면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경제 사회 문제 제반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경제학 이론을 응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인문계열과 이과 계열 학생들이 갖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 계열에 상관없이 경제학에 흥미가 있다면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경제는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경제”라는 학문이 삶 모든 곳에 묻어 있어 새롭게 관심 분야가 생겨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8. 경제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경제학도를 위한 한마디

경제학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학 학문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민간, 공공, 기업, 국제, 도시, 환경, 보건, 문화, 교통 등 다양한 경제 사회 문제 전반에 적용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부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제공하기에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제학부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학과라고 자부합니다.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자신의 흥미와 특징점에 맞춰 꿈을 펼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의 꽃 경제학과 진학을 선택하신 것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다짐합니다. 꼭 원하시는 대학의 경제학과에 합격하셔서 즐거운 대학 생활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경제학부를 떠올리면 단순 경제학과 한 가지만 떠오르지만 사실 무수히 많은 과가 있고,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무역, 부동산 등등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학부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학부 경제학부의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03

## 교육학과

교육계열학과에서 있었던 일..썰폰다

Part 1

인문 사회계열

## 교육계열학과에서 있었던 일..썰폰다

▶ 정민지, 신혜림, D장학생

### Q1. 교육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아의 전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할 교사 양성이 이뤄집니다. 먼저 1학년에는 유아교육의 역사, 영유아 발달, 유아교육학개론과 같은 과목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후 2, 3학년에는 언어, 수학, 과학, 사회, 미술, 음악, 동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교과목 수업을 학년에 나눠서 각각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수업안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징과 더불어 교수 방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팀을 이뤄 모의수업을 진행하며 활동 계획안 작성법, 교구 제작 등의 예비교사 훈련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초등교육과:** 교육대학교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면,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목적 대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육대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지역 국립 교육대학교는 서울, 경기(인천), 부산, 대구 등 10개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그 밖에도 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에 초등교육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대학교의 학과는 모두 초등교육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국어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실과교육과, 수학교육과 등 11개의 심화전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전 과목(수학, 과학, 국어, 윤리, 사회, 체육, 영어, 음악, 미술, 컴퓨터, 실과 등)을 배우고 교수법,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등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 **사회교육과:** 사회교육과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문화인류학, 사회철학 등 종합적인 사회과학 분야와 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사회과 교육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에서 사회 1, 2,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 Q2. 교육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졸업 후 진출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이 졸업 후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취업해 교사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아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아 교재 및 교구 제작업체나 동화 출판사 같은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도 나뉩니다. 또한 학부생일 때 상담 과목의 수업을 이수하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아동 놀이치료사, 상담전문가와 같은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초등교육과:** 교육대학교는 초등 교사가 되고자 입학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이 4학년 말에 초등 임용고시를 치릅니다. 서울, 경기(인천), 세종을 제외한 경쟁률이 세지 않은 지역을 지원하는 경우는 초시에 합격하여

졸업 후 바로 교직 생활을 합니다. 교직 생활을 하다가 장학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학사는 교육과정 연구, 개발, 실행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학교 시찰을 하고 지도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 전문직원입니다. 반면 교대 입학 후, 교생 실습을 하며 적성과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소수의 학생은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반수를 하기도 합니다.

• **사회교육과:** 사회교육과 진출 분야로는 기업 및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 및 산업체 쪽으로는 시민사회단체 여론 조사 및 시장 조사 기업, 기업체 조사 분석실,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광고 기획사, 사설 학원, 금융회사, 교육 관련 기업체 및 출판사, 교육 및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학계 및 연구기관 쪽으로는 공사립 중·고등학교, 대학, 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여론연구소, 사회정책연구소, 노동사회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정치와 법 관련 연구소, 철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쪽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교육청, 교육부 등 사회 및 교육 관련 공공기관, 통일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교육과는 다양한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에 뜻을 두고 입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중등교사로 진출합니다.

### Q3. 교육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에 입학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동기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의 특성상 팀플이 많은 편인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기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과목마다 팀플과 모의수업, 과제가 많아서 개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수업에서 모의수업을 진행하고, 이에 맞는 교구도 제작하며 힘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체력을 개인적으로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초등교육과:** 장점은 초등 교사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졸업 후에도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되며, 유대감이 깊다는 것입니다. 또 목적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등 교사로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학기 중에 수업 구상부터 지도안 작성, 수업 실연, 교생 실습에 매년 참여하며 예비교사로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수업 외 업무와 학부모-학생과의 상담, 현직 교사와의 만남 등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험 점수에 맞춰서 입학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입학한 학생 중에는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사회교육과:** 사회교육과에 가장 큰 장점은 사회에서 필요한 다방면의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 화폐와 금융, 세계 경제 흐름 등의 경제 지식과 민법, 헌법, 노동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법과 판례들을 다양하게 다룹니다. 또한 정치, 문화인류학, 사회학을 배우면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태도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합격한 졸업생 선배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얻고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회계열 과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사회 분야의 다방면의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배워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법 경우에는 처음 배울 때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과목을 익히는데 시간이 사람에 따라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 Q4. 교육과는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나요?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는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유아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이를 본인 역시 유아들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적성에 잘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유아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놀이하는 ‘놀이자’로서의 교사 역할도 중요하기에 진심으로 유아들과 놀이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초등교육과:** 초등학생을 좋아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초등교육에서는 지식적인 지도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성립되어가는 시기인 만큼 전인적인 교육을 중시합니다. 더불어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말을 많이 하고 들으며, 학부모 상담이나 아이들과 항상 어울리는 직업이기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공감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점차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교육과:** 교육과는 교직 수업도 다양하게 들어야 하고, 교육 봉사 60시간 등 교직과 관련된 수업과 활동이 대부분이라서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그중에서도 평소 사회과목이 재밌고 사회현상과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 Q5. 교육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유아교육 관련 서적과 관련 기관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확인해볼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찾아보며 수시 면접 대비를 위한 지식을 찾아보고 익혀 미리 준비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초등교육과:** 학교마다 수시와 정시 정원이 다르지만 대체로 거의 같은 비율로 모집 중입니다. 교대에서는 입학시 수시, 정시 공통으로 면접이 중요합니다. 수시모집에서는 인성 면접이나 교직 적성 면접, 정시에서는 사회적 이슈나 교직 적성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준비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서 스터디를 구하여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 **사회교육과:** 수시전형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와 관련된 동아리와 활동, 교내 수상 등을 고려하여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전형으로 준비한다면 성적 기준 외에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Q6. 교육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유아교육과:** 1학년 때는 유아교육사조, 영유아 발달, 유아교육학개론, 유아교육과정과 같이 유아교육의 역사를 알고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2학년이 되면서는 언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 동작 등 다양한 교과목별 수업을 들으며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교수법을 심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3학년이 되면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이 기관에 배정되어 담임교사의 보조역할을 하고, 실제 유아를 위한 수업을 직접 계획해 진행하기도 하며 현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배운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보는 경험을 하고, 교사로서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졸업 논문을 작성하고, 취업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최종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는 11개의 교과목, 교육학, 교양 수업을 수강합니다. 심화전공과 상관없이 11개의 교과목의 내용과 각 과목의 교수법을 배우고 음악, 미술, 체육 실기 수업을 병행합니다. 주로 1~2학년에 합창, 피아노, 조소, 탈춤, 스포츠댄스, 수영 등 예체능 실기 수업과 함께 타 과목 기초 수업, 사회과학, 인문학 교양 수업이 이루어 집니다. 교생 실습은 참관 위주로 진행되며 3차시 정도의 수업을 구상하여 실연하기도 합니다. 3~4학년에는 각 과목의 교수법과 수업 실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생 실습에서도 실연 횟수가 많아져 약 2주~1달가량 배정받은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심화전공마다 졸업 요건이 다른데, 졸업 논문을 쓸 때는 3학년에 4학년 넘어가는 겨울 방학에 주로 작성하고 임용 공부도 이때 시작합니다. 학기를 다니면서 임용 공부를 병행하고 4학년 2학기 11월에 있는 임용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 **사회교육과:** 1학년 때는 주로 교직, 교양 수업 위주로 학점을 채우고, 전공은 법학통론, 시민교육 등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부턴 본격적으로 일반사회교육론, 사회와 정치, 시장경제의 이해, 사회조사방법론, 한국헌법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3학년 때는 사회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시민경제와 정부, 사적생활과 법, 국제관계론 등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웁니다. 4학년 때는 세미나와 특강의 형식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배운 전공과목 내용을 정리하는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 Q7. 교육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활동이 있나요?

• **공통:** 교육 관련 기관의 ‘교육 봉사’에 꾸준히 참여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꾸준한 교육 봉사 참여를 통해 수시전형에서 교육과에 대한 본인의 의지와 관심을 보여 줄 기회가 되고, 면접 때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 봉사 외에는 멘토링이나 교육대학에서 진행하는 학교 탐방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멘토링이나 학교 탐방 프로그램은 현직 교사 선배나 교대 선배를 만나 원하는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탐방 프로그램은 각 교대 입학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과 함께 자율 동아리를 개설하여 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 볼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생활기록부에 교육과 진학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교육과의 경우 경제신문을 꾸준히 구독하여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거시경제의 경우 낯선 용어가 많고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신문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조금씩 읽어본다면 전공에서 경제를 배울 때 훨씬 수월하고 경제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등교육과 관련 사진>

1. 전공 수업 중 생물 부스 운영 과제물 / 준비과정



2. 수묵화 가지 그리기(1학년 미술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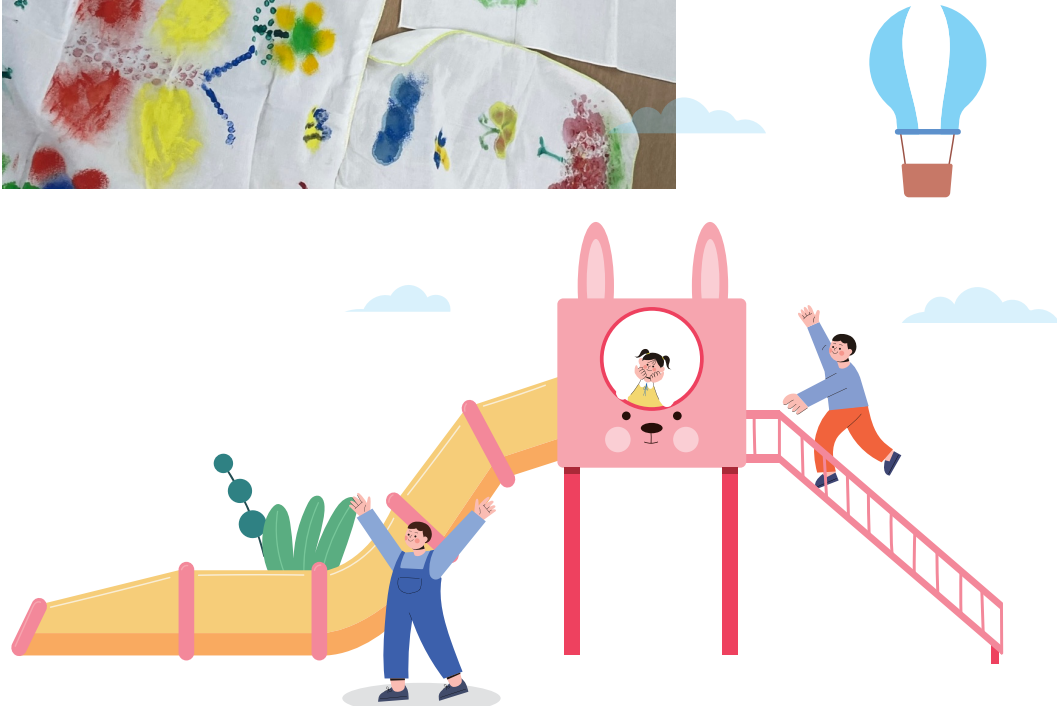


<유아교육과 관련 사진>

1. 유아과학교육 야외활동



2. 아동미술 워크숍 활동





# 04

## 미디어콘텐츠학과

신문에서 틱톡까지, 미디어콘텐츠전공

Part 1

인문 사회계열

## 신문에서 틱톡까지, 미디어콘텐츠전공

▶ 문채원, 최어진, 이희주, 황혜정 장학생

### Q1. 미디어콘텐츠전공은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미디어콘텐츠전공은 세상과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물인 '콘텐츠'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이에요. 영상, 광고, 게임 등 하나의 콘텐츠가 기획, 제작, 유통되는 과정을 배우며 미디어와 대중의 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 미디어콘텐츠 학부의 핵심이죠.

이론적으로는 언론과 뉴스를 중심으로 언론의 역사를 짚으며 저널리즘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론에 대해 배우며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해 탐구해보기도 하죠.

실습 면에서는 다양한 실습 과목을 통해 실제 방송 취재나 기사 작성의 과정을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해 광고를 제작해보는 등 실무적인 수업 역시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콘텐츠전공은 이론과 실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학문입니다!

### Q2. 미디어콘텐츠 전공과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미디어콘텐츠전공은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D, 기자, 아나운서 등의 직업을 갖기 위해 방송국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매체의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OTT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홍보나 마케팅 직무로 진출하는 예도 많습니다. 미디어콘텐츠전공은 본인이 가진 적성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3. 미디어콘텐츠전공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디어콘텐츠전공은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미디어에 대해 배우고, 배운 이론들을 적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어서 만족도와 이해도가 높습니다. 미디어라는 학문 자체에서 뿜어 나아갈 수 있는 분야도 상당하므로 이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더 흥미를 느낀다면 방송, 광고, 디자인 분야로 미디어 현상에 대해 더 흥미를 느끼면 언론, 저널리즘 등 다양하게 경험해 본 뒤 본인이 더욱 관심 있는 분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전공은 입학 후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학생 신분으로 학교 성적 이외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이슈, 그리고 변화에 관심이 기본적으로 많다면 더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큰 관심이 없다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 전공이 가지는 단점 같습니다.

### Q4. 미디어콘텐츠 전공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

미디어콘텐츠 전공의 커리큘럼은 학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저널리즘을 중점으로 배우는 학교도 있고, 영상 미디어를 중점으로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미디어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라면 영상 미디어를 중점으로 하는지,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지가 다른 학교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 학과라면 영상 편집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미디어 연구 방법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진학 전 대학교들의 해당 학과에 들어가 보셔서 커리큘럼이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Q5. 미디어콘텐츠 전공이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미디어콘텐츠전공은 전공 수업에서 조별 과제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같은 진로를 가지고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조별 과제가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조별 과제가 많아서 성실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전공은 개인 역량도 중요합니다. 이론 이외에 실습도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 실습에서 배운, 그리고 앞으로 배울 여러 능력을 습득하고 보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역량은 미디어 현상에 관한 관심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미디어 현상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풀어내는 것이 미디어콘텐츠 전공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능력입니다. 따라서 개인 역량과 성실함을 키워 나로 인한 긍정적 영향력을 사회에 펼쳐주길 바랍니다.

### Q6. 미디어콘텐츠 전공에 진학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나요?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대학에 오고 나서 미리 배워뒀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미리 조금이라도 숙지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 와서 과의 여러 활동이나 과제를 하며 영상을 만들거나 포스터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할 때 관련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는 상태다 보니 처음부터 배워야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 입학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프로그램을 가볍게라도 배워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대학에 가서 더 좋은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Q7. 미디어콘텐츠전공이 타 전공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나요?

가장 큰 특징은 ‘현재진행형’과 ‘확장성’이라는 2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어요. 미디어콘텐츠전공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변화 속도가 빠른 학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써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미디어콘텐츠 전공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TV, SNS, 넷플릭스 등 다양한 미디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전공 역량을 키우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전공은 매우 다양하게 확장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언론, 방송, 광고, 디자인, 마케팅 등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모든 직업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전공이죠. 따라서 미디어콘텐츠 전공에 입학하면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선수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전공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미디어콘텐츠 전공의 특징입니다.

Q8. 미래 사회에서 미디어콘텐츠전공이 갖는 강점(비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디어콘텐츠 전공의 가장 큰 특징은 제작자의 생각을 콘텐츠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콘텐츠 전공은 미디어의 힘과 중요성이 점점 강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콘텐츠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디어콘텐츠전공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 05

## 법학과

Legal Mind, 법학과 학생에서 법조인까지

Part 1

인문 사회계열

## Legal Mind, 법학과 학생에서 법조인까지

▶ K장학생, 안동호, O장학생, L장학생, 지하린, H장학생

### Q1. 법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O장학생:** 법학과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인 법률을 학습합니다. 사법(민법, 상법), 공법(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회법(세법, 경제법)에 더해 국제거래법,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을 학습합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법철학이나 법사상 수업이 개설되기도 합니다. 보통 수업에서는 각 법률의 조문들이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함께 각 조문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배웁니다. 한 이론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대립할 때는 판례의 태도를 우선하여 학습하고, 특히 최근에 기존 견해에서 바뀐 판례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법학은 준용 등을 통해 과목 간의 연결이 이뤄질 때가 많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민법, 헌법, 형법을 꼼꼼히 학습해야 이를 토대로 하거나, 준용하는 다른 법률들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L장학생:**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와 평화의 실현’입니다. 사회가 복잡다기화해지면서 어느 분야에서나 법적 기능이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행정수행, 정치활동, 기업 운영 등에서도 전문적인 법 지식이 요구되면서 법학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학은 실정법 분야에 따라 헌법, 형법 등의 ‘공법’ 분야, 민법, 상법 등의 ‘사법’ 분야, 노동법, 경제법 등의 ‘사회법’ 분야로 구분됩니다.

법학과에 입학하면 먼저, ‘법학개론’ 수업을 통해 앞서 언급한 분야의 법들을 대략적으로 공부합니다. 이후에는 각 학교의 커리큘럼과 법학개론에서 배운 흥미로웠던 법들을 고려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법학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을 ‘기본 3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 기본 3법과 더불어 중요한 과목들은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총칙은 각 법의 전체를 포괄하여 흐름을 배울 수 있으며, 각칙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조문을 배웁니다. 따라서 총칙을 통해 해당 법 과목의 전반적 틀과 법리를 익힌 후, 각칙을 통해 세부적인 각 조문을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 Q2. 법학과 관련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K장학생:** 법학은 어디에나 유용한 학문이기 때문에 법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진로는 크게 법률서비스 관련 직종, 공직 관련 직종, 기업 관련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관련 직종에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취득을 위한 시험과목들은 대부분 법학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타 전공자들과 비교하면 법학 전공자가 유리한 편입니다. 공직 관련 직종으로는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직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도 다수의 법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직 관련 직종을 준비하는 법학 전공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직종에는 기업체 법무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에서는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하기에 법학

전공자는 기업으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H장학생:** 질문에 답하기 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를 결정하면서 꼭 학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깨달은 점은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고 정말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학과를 진학하든 진로에 한계를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과목에 법학이 있다 보니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직렬은 워낙 다양하지만 법원직 공무원이나 검찰직 공무원이 많은 편입니다. 혹은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여 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거나 국제기구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법학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진출 분야도 다양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의 꿈을 위해 일부 학우분들은 로스쿨에 진학을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 Q3. 법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학과는 단어 그대로 법의 이해를 위한 학문이며 법 지식을 이론적, 실질적으로 학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법 생활을 영위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법학과에 입학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을 학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을 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립된 하나의 사회인으로서의 필수적인 자질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논리력과 사고력은 법학도로서의 가장 큰 자량거리일 것입니다. 다만 법학은 공부량이 아주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법학을 공부하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법을 익히게 되면 해결될 일이지만, 신입생일 때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 Q4. 법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면 유리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법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전형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것이 다르겠지만 면접 혹은 자기소개서 준비를 위해 일반적인 법학과 교수님들이 중요시하는 능력에 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리얼마인드’로, 법적인 사고력 또는 논리력을 의미하는 법리적 판단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학은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되는 학문이므로 사회 현상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각 사례를 분석적이고 공정하게 사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법학과에 진학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분석적인 사고력과 논리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등을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논술 대회, 토론 활동, 독서 등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들과 그 성과에 대하여 면접 혹은 자기소개서에 어필한다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 Q5. 법학과는 어떠한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인가요?

법과 법학의 의미를 고려하면, 법학과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와 관련된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춘 학생에게 법학과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법학과에 적합한지 또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법학 관련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법학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면, 진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사내전(저자 김웅), 디케의 눈(저자 금태섭) 등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의 법학 강의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MOOC(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해 실제 대학의 법학 강의를 무료로 청강할 수 있고, 기본 3법(헌법, 민법, 형법) 강의 중 본인이 흥미가 있는 과목을 청강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Q6. 자율전공학부는 어떤 학과인가요? 법학을 전공할 수 있나요?

자율전공학부는 말 그대로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학문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특정 전공에 소속되지 않고 다른 학과의 전공 강의를 수강한 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원하는 학과가 불분명하다면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자율전공학부 시스템이 다르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 1학년 기간 동안 예체능 계열, 의학·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과의 전공 강의를 수강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후 개인의 선호에 따라 2학년이 되면 전공을 확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법학에 관심은 있었지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교 때의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와 결이 다르고, 고등학생 때의 일부 경험만으로 대학교 4년 혹은 2년에 걸쳐 배울 전공과목을 확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공과 자신의 흥미가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동기들, 전과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서 고민이 많은 고등학생, 전공 선택은 했으나 확신은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자율전공학부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실제로 법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자율전공학부는 더없이 좋은 선택지입니다. 법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확신 없이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학에 와서 같은 고민을 하는 동기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조금 더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선택을 원한다면 최고의 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 Q7.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로스쿨 진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학토릿’으로 불리는 학점, 토익, 리트(LEET)입니다. 학점과 토익은 개인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특히 법학적성시험, 즉,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리트(LEE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학년 때는 책을 많이 읽으며 지식을 쌓고, 독해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책을 많

이 읽는 것이 정말 쉬운 목표일 수 있으나, 막상 실천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책을 읽으며 독해력을 키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리트의 ‘언어이해’ 과목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정치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취약한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의 기본적인 교양서적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리논증’ 과목은 논리의 기초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논리, 비판, 사고 능력 등의 내용을 가진 교양을 수강하면 좋습니다. ‘추리논증’에 필요한 논리와 사고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인 범위가 없기에 학원보다는 학교 안에서 기본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4학년 때는 앞서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지, 인터넷 강의를 구매할지, 문제집과 기출 문제로 독학을 할지 등 개인적으로 역량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집리트’입니다. 집과 같은 편한 장소에서 최근 기출을 실제 시험 시간에 맞게 풀고 채점을 한 후 앞서 말한 것을 판단하여 리트를 준비하면 됩니다.

### Q8.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에 법학과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학의 양은 굉장히 방대하기에 대학교 법학과에서는 로스쿨에서 배울 법학의 맛보기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학과에는 법학의 기초인 민법, 형법, 헌법뿐만 아니라 민법 외의 사법(상법 등), 형법 외의 공법(행정법, 소송법 등)과 노동 복지법, 세법, 국제법 등 다양한 과목이 존재합니다. 학부 수업을 통해 한 학기 동안 각 과목의 내용을 전부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보통 교수님들께서 일정 파트를 제외하고 수업하십니다. 그렇지만 미리 법학을 접하여서 기초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타 학과를 전공하고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보다는 로스쿨 수업을 따라가는데 수월함을 느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스쿨에 합격한 많은 대학생은 대학교 졸업 후와 로스쿨 입학 전의 시기에 민법을 선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학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만 공부하거나 다뤘던 부분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타 전공을 공부하고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해 지식의 범위가 좁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회 견학 사진>



# 06

## 사회과학과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의 정체 편

Part 1

인문 사회계열

##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의 정체 편

▶ 가은, 정현서, 정원 장학생

### Q1. 사회학과와 문헌정보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 **사회학과:** 사회학과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주변 현상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사회학과에 오시면 다양한 학자의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사회·문화 과목에서 배우는 베버, 뒤르켐, 미드같은 학자의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르고 교수님과 학우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각자가 평소에 겪는 모든 일이 사실은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 넓은 세상 전체와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고 궁금증을 품는 힘을 의미해요. 또 정치사회학, 노동사회학, 심리사회학, 영상사회학, 산업사회학처럼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학습할 수 있어요!

•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곳입니다. 초기에는 도서관학과였던 곳인데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정보학, 데이터와 코딩 등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 수업(자료조직, 도서관경영, 정보서비스 등)과 서지학(고문헌 관련), 정보학 및 데이터학(정보검색, 데이터&코딩) 관련 수업으로 나뉘어서 진로에 맞게 더 관심이 가는 수업 위주로 들으면 좋습니다. 학교마다 커리큘럼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학부 과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Q2.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 **사회학과:** 사회학이 다양한 이론이 생산되는 사회과학의 기초 학문인 만큼, 사회학과에서는 생각하는 힘과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어요. 따라서 취업 분야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인 학문 특성을 바탕으로 삼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디든지 진출할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진출 분야로는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정계(국회의원, 보좌관 등), 언론 및 방송계(PD, 작가, 영화감독 등),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원, 사기업(마케팅, 경영 등) 등이 있어요. 주변 선배들을 보면 특히 언론, 법조계, 일반 기업, 조사기관의 선호도가 높고, 진로로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분야마다 선배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한 것이 사회학과니, 흥미가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보세요!

•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는 배우는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실용 학문이고, 졸업과 동시에 사서 자격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공공·학교·대학 도서관, 방송사나 기업 자료실 등으로의 취업이 대표적입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중심으로 장서 관리, 행사 진행 등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지식을 다루

는 것에 관심이 있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학생들에게 진학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맞게 데이터 분야 수업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사서를 꿈꾸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진학 후 컴퓨터공학, 통계학, 역사학 등 다양한 전공을 문헌정보학과 연계하여 배우며 시야를 확장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출판업계, IT 계열 기업,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관, 웹 관련 연구소와 기업체, 기록관리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Q3.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서:** 사회학과에 입학하면 사회를 다각도로 관찰하고, 이론을 다루는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학부 과정에서 문화사회학, 경제사회학, 언론사회학, 범죄사회학, 기업과 노동의 사회학, 의료사회학, 사회학 이론 수업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학을 접목하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펼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 높고 다른 학과 수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양한 영역을 탐구하기에 깊은 공부를 못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러 영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공부는 전문직을 위하거나, ‘스펙’이 되는 공부는 아닐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하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꼭 필요한 힘이에요. 이런 시각이 있다면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든 내가 위치하는 환경을 관찰하고 세상의 흐름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은:** 앞서 말했듯, 사회학은 실용적인 학문은 아닙니다. 주로 이론과 토론, 탐구 위주의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실용적인 과목들을 꼽자면, 우리 학교인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사회조사방법론, 사회통계론 등이 있어요. 전공필수!로 다루는 수업들이랍니다. 이 부분을 살리면 빅데이터 시장 쪽으로 취업할 수 있긴 해요. 다만 이 수업들에 국한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다양한 영역을 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자 스타일이라면, 아주 보람찬 학과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 문헌정보학과는 모두에게 평등한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기관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처리 역량을 기르는 분야입니다. 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정보 전문가의 양성에 목적을 두는 전공이므로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고, 인문 사회계열임에도 응용과학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여러 학문과 연계해서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예요.

단점으로는 소수과이고, 문헌정보학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항상 전문성과 정당성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느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이고,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는 건 장점도 되지만, 사서 쪽에 큰 관심이 없다면 전공 수업에도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고, 다양한 분야 중에 진로를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때는 동기와 선배, 교수님과 상담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 Q4.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서: 사회학과는 팀플이 상대적으로 적고 개인 보고서 작성이 많다 보니 개인 의견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큰 것 같아요. 학교의 학풍도 중요하지만, ‘사회학과’ 활동 단위 자체는 개인이 주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화사회는 FM인 ‘해방이화/변혁사회/열린사회’처럼, 열려있고 열려있으려는 분위기가 강해요. 참고로 우리 이화여대 사회학과에는 짝수 학번과 홀수 학번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다면 입학해서 확인해보아요~^\_^

가은: 우리 학교(중앙대)만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사회학과만의 기조가 있어요. 바로 ‘반성반권’입니다. 반성폭력, 반권위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정원: 문헌정보학과는 생각보다 팀플이 많아요! 도서관 관련 수업은 프로그램이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프로젝트, 데이터 관련 수업은 코딩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많아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소수과이다보니 전공 수업이 많이 겹치는데요. 동기, 선배들끼리 서로 얼굴을 많이 아는 편이고 제 경험상으로는 다들 팀플을 할 때도 열심히 참여하는 편입니다. 1학년 때는 동기들끼리 고등학교 한 반 같은 분위기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문정에 꿈을 가지고 관심이 많은 친구는 그만큼 확고하고 열정 가득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서로 아껴주는 분위기가 좋습니다ㅎㅎ

#### Q5.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현서: 사회에 대한 애정을 비판 의식으로 드러내는 학과^\_^S2

가은: 언제나 비판 의식을 가지고 더 좋은 사회를 바라는 학과 (사회에 애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정원: 쏟아지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모든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는, 꼭 필요한 학과^\_^

#### Q6.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사실을 알려주세요!

현서: (아마존 댄스와 함께) 사회복지? 아닙니다~ 사회교육? 아닙니다~ 사학?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학과”! 뒤르캄마스베버. 여기는 사회학과~! 더해서, ‘사회’학과지만 반사회적일 것 같다는 재미있는 오해가 있어요. 사회학과에는 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마르크스)도 있지만, 사회의 유지, 보수를 설명하는 이론(뒤르캄)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행위에 집중하는 이론(베버)도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여기는~ 사사사사사사사 사회학과.

가은: “입학 축하한다. 어디 학과 갔니?”

“사회학과요!”

“뭐라고? 데모 하지 마라.”

▶ 사회학과라고 모두가 사회운동가적인 성격을 지닌 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정원: “무슨 학과 다니세요?”

“문헌정보학과요!”

“아~ 책 좋아하시나 봐요.” or “뭐 하는 학과예요..?”

▶ 사실 전 그렇게 책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다독가도 아니어서 민망하네요.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 사서 직종이나 출판계 등으로 진로를 설정한 친구들은 책과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저희도 도서관은 시험 기간에만 가요.^^ 그리고 다 엄청 조용할 것인데! 도 아닌게, 활발한 학우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사서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요. 조용하고 책만 읽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가 훨씬 많은데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책을 매개로 항상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상하고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게 매우 아쉬워요!





# 07

## 사회복지학과

다양한 학문을 접근하면서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사회복지학과로 와라!

Part 1

인문 사회계열

## 다양한 학문을 접근하면서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사회복지학과로 와라!

▶ 안은정, 서나루, 배경탁, 김수빈, 김민지 장학생

### Q1. 사회복지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김민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는 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개인, 가족, 집단, 국가, 세계 등)으로 복지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분석 및 연구하여 실천하는 학문입니다.

**김수빈:** 인간과 사회복지제도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응용학문으로써 다양한 복지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 방법을 연구, 실천하는 학문입니다.

**서나루:** 실직, 장애, 가난, 경력단절, 차별 등 우리는 때로는 혼자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위험과 고통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안은정:** 사회과학의 응용학문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지향합니다. 본 학과를 졸업하면 이들은 복지관이나 각종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과 병원 등에 진출하여 일할 수 있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Q2.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다양한 관점(교육, 정책 등)에서 바라보면서 사회현상을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사회복지학과만 공부하게 된다면, 비정부기구와 대기업에 소속된 사회공헌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등 시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직무로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복수전공과 부전공 과정을 거쳐 임상심리사, 웹 개발자, 보육교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 Q3.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민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목에서 발달 부분은 재활상담심리학과에서 발달심리학 과목처럼 유사하게 배우는 등 다양한 학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행정학과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정법만을 익히고 다른 법률은 배우지 않는 등 학문의 깊이가 다소 부족합니다.

**서나루:** 매우 다양한 학문을 동시에 폭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지는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행정과 정부 조직에 대한 이해, 산업과 노동 현실에 대한 이해, 심리학과 상담학에 대한 이해, 가족\_실버세대\_페미니즘\_아동\_청소년\_1차/2차 노동시장과 외부/내부노동시장\_노동자\_정책\_정치 등 많은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학과 수업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을 배워야 하고 배우게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그 학문들에 대한 공부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 Q4. 사회복지학과에 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까요?

**김민지:** 사회복지학과에서 다양한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점 기준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사회문화, 법과 정치, 영어-한문]을 자세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에서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아노미 이론을 배우면서 '사회복지정책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과 정치]에서 법이 종종 나와 외우면 전공과목에서 법이 나와서 공부하기 수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한문]도 중요합니다. 영어는 외국 복지(사례)자료를 찾아서 비교·분석할 수 있고, 한문은 1990년대 전인 한국 사회복지 논문을 보면, 어조사를 빼면 거의 한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번역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번역기의 한계와 복사가 되지 않아서 좋은 자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꼭 필요합니다.

**배경탁:** 이외 [세계사] 교과목도 사회복지 전공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계사의 경우에는 영국,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제1·2차 세계대전, 맑스주의 등 세계사적으로 주요한 사건들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통해 '사회복지역사'라는 교과목을 이해하기 수월하였습니다. 주요 국가들 사회복지 발달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발전 과정을 함께 비교할 수 있었으며, 다른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Q5.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 자체가 사회복지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등 여러 기관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를 경험하는 것은 사회복지학과를 준비하고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자신의 진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학 전형에 따라 봉사활동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전형이든 다양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학 이후에도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실습 프로파일에서도 자신의 이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 Q6. 사회복지학과 강의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강의는 무엇인가요?

**김민지:** [사회복지 행정론] 교과목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중간영역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사회복지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배우고 사회복지조직의 영역과 관리의 방법론을 습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어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행정 처리

할 때 큰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우는 동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 및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배경탁:**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교과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교과목은 굉장히 미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성장과 발달을 개인과 사회의 연관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정상, 비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주요 관점인 ‘환경 속의 인간’에 기초하여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으로 활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행동과사회환경]이라는 교과목이 추후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등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교과목에서 배경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Q7.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개 졸업하면 건강가정사랑 사회복지사 2급이 나옵니다. 추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청소년 지도사, 소비자상담사, 경영지도사 등을 취득 가능합니다. 활용도가 더 높은 사회복지사 1급은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됩니다. 추가로,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이나 정보처리(산업)기사를 따두면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신력 없고 비웃음을 살 수 있는 민간자격증을 함부로 취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식 학회 자격증을 제외한, 어떠한 공신력 없는 민간자격증(MBTI 강사자격)도 취득하지 마시고, 어쩌다가 보유하고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공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Q8. 사회복지 실습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김민지:** 학교에서 들은 오티 내용에 의하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천에 옮기는 기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기회,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과 복지기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기관 내 오티에 의하면 행정 능력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학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김수빈:** 전문적 지도·감독하에서 ① 행정적 능력과 기술 습득과 실습 기관의 행정적 특성 파악, ② 지역사회의 특성, 문제정의, 욕구와 자원 사정 및 평가, ③ 문제해결 능력 습득, ④ 전문적 자아와 가치관 확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주의 실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직접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하는 실천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실습 장면>

| 학기        |     | 전공필수 (3학점)            | 전공선택 (3학점)                         |
|-----------|-----|-----------------------|------------------------------------|
| 1학년       | 1학기 |                       | 자원봉사론                              |
|           | 2학기 | 사회복지학개론               | -                                  |
| 2학년       | 1학기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br>사회복지실천론 | 아동복지론<br>가족복지론<br>청년건강론            |
|           | 2학기 | 사회복지실천기술론<br>사회복지행정론  | 장애인복지론<br>사례관리론<br>건강가정론           |
| 3학년       | 1학기 | 사회복지정책론<br>지역사회복지론    | 청년건강사회복지론<br>가정생활교육<br>노인복지론       |
|           | 2학기 | 사회복지조사론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br>사회복지역사<br>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4학년       | 1학기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비영리기관운영관리<br>의료사회복지론               |
|           | 2학기 | -                     | 학교사회복지론<br>사회복지세미나<br>사회문제론        |
| 3,4<br>공통 |     |                       | 사회복지현장실습                           |
| 총 이수 학점   |     | 9과목 27학점              | 30학점 이상 이수                         |

<사회복지학과 수강편람 사진>





08

## 신학과

신과 함께!

Part 1

인문 사회계열

## 신과 함께!

▶ 고강건, 박예은 장학생

### Q1. 신학전공은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신학전공은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직 신학), 이 세계와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철학), 교회란 무엇인지(교회론)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를 더 세분화하면, 교회를 섬길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회학,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학, 해외 파송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학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Q2. 신학 관련 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 **신학과:** 신학과는 학부를 졸업한 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회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음악과 관련된 교육을 따로 받은 뒤, 전문 찬양사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이나 사회복지와 함께 전공한 경우, 신학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기독교 심리 상담이나 기독교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군목 생활을 하거나, 선교학을 전공한 후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합니다.

•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과는 졸업한 후 진로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하게 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종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기독교 사립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교목, 종교 교사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학, 보육학, 언론학 등을 공부하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가 되기도 하고, 기독교 언론사에 입사하여 언론인이 되기도 합니다.

### Q3. 신학 관련 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강건:** 신학과와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신학을 전공하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역사, 이 세계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전문적인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이 신학과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신학과와 교육과정을 겪으며 기독교 신앙을 단지 지식 정도로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신학적 개념에 회의를 느끼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 전공자들은 신학을 단순히 지식이 아닌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하며, 겸손한 태도로 배움에 임해야 합니다.

**박예은:** 기독교교육과에 입학했을 때 큰 장점은 신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교육학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와 교육이 합쳐진 학문이기 때문에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육학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한 학기에 70%의 채플을 채워야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그냥 시간 보내는 게 되어 있을 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개인 신앙 훈련을 단단히 하고, 마음가짐도 잘하고 입학해야 합니다.

### Q4. 신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고강건:**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 원래는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떠한 계기로 단체를 나오게 되었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워 한국 사회와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박예은:**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정이라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기독교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Q5. 신학 관련 학과 진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신학과:** 신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와 이 사회를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명감이라 합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수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기초적인 신앙훈련 정도는 받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신학과 면접은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건전한 신앙관을 소유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결국 신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 인성, 가치관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기독교교육과:** 신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이나 기독교 교육을 지겨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매일 반복되는 예배와 수업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주 많이 가지고 진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기 위한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진학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Q6. 신학 관련 학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 **신학과:** 신학과에 진학하면 가장 처음으로 세계관에 대하여 배웁니다. 물질만능주의, 모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혼란스러운 세계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을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공과목으로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개념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조직 신학, 기독교의 중심인 성경을 배우는 구약 및 신약학,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세계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루는 기독교 철학, 나중에 목회자가 될 학생들을 위한 설교학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목회가 아닌 해외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선교학 관련 과목도 다수 존재합니다.

•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과에 진학하면 가장 먼저 종교교육에 대해 배웁니다. 기독교 교육보다 상위 범주인 종교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종교학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종교심리학, 종교사, 종교사회학, 종교철학 등 종교와 사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직과목으로는 교직실무, 교육심리, 특수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등 사범대에서 배우는 교직과목들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양과목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육과의 경우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상이하니,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란을 확인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7. 신학 관련 학과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수업은 무엇인가요?

**고강건:**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교회사 개론’이라는 수업은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어거스틴과 같은 기독교 교부들과 루터 및 칼빈 등으로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이나 개인의 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한 도시, 한 나라, 한 시대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신학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닌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의 진정한 비밀을 담고 있는 학문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인간답게 살고자 한다면 신학을 배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예은:** 개인적으로 ‘종교학개론’과 ‘교육심리’가 가장 의미 있었던 수업입니다. 종교학개론을 들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교학’을 접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서 흥미가 있고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학개론 수업을 하였던 교수님의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종교학을 배울 때 학생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셔서 1학년 때 들었던 수업이지만, 아직까지 인상깊은 수업으로 남아있습니다. 교육심리는 교직과목이지만, 기독교교육과이기 때문에 기독교교육심리를 배웠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경험하셨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에게 어떤 회심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행복했던 수업이었습니다.





# 09

## 영어학과

여러분의 마음에 enchant를: 영어관련학과에 대한 모든 것

Part 1

인문 사회계열

## 여러분의 마음에 enchant를: 영어관련학과에 대한 모든 것

▶ 강유진, 김수진, 김영현, 윤태원, 이도윤, 이현지, 임다현 장학생

### Q1. 영어영문학과, 영어산업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배웁니다. 우선 영어학은 영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언어로서의 영어를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과 과정을 통해 영어가 발음 되는지 배우는 음성학, 단어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해 배우는 형태론, 언어음의 체계와 형태를 연구하고 음운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음운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학문인 통사론, 언어의 의미를 연구하는 의미론, 제2외국어로써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영어교육론 등이 있습니다. 영문학은 영어로 된 문학을 읽고, 분석하고, 비평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시, 희곡, 단편소설, 장편소설 등을 다양한 시대별로 배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셰익스피어의 ‘햄릿’도 중세 시대 쓰인 원문으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는 영어로 듣고, 말하고,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입니다. 저희 학과의 경우 영어 글쓰기 수업과 영어 말하기와 토론 수업이 전공필수 수업으로 지정되어 졸업을 위해서는 3개의 수업을 꼭 들어야 합니다. 수업의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며 가장 힘들지만 가장 얻을 것이 많은 수업이기도 합니다.

• **영어산업학과:** 영어산업학과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인문학적 소양과 데이터 기술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언어인 영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여 영어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대표적인 교과목으로 「영어산업입문」, 「코퍼스영어학」, 「영어산업과경영」, 「디지털에디팅」, 「기계번역실습」 등이 있으며, 이 교과목들은 모두 제4차산업혁명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기계번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Q2. 영어관련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 **영어영문학과:** 영문과의 장점은 진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학 생활 동안 영어와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진로인 교수, 교사, 통역사를 고려해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기자, 기업인, 출판, 국제기구 종사자 등 대부분의 진로를 택하는데 있어서 큰 한계가 없습니다. 저도 현재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며 창업을 꿈꾸고 있으며 동기들도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진로를 희망하든 영어영문학과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어산업학과:** 영어산업학과는 영어영문학과처럼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교육, 무역, 경영, 관광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저처럼 학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기계번역 산업에 종사

하는 졸업생들도 있고, 영어교육 평가연구원 혹은 영어 과목 강사를 하며 영어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이외에 대기업에서 사무직, 해외 영업, 마케팅 직무를 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등 폭넓게 여러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 Q3. 영어관련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다현:** 장점의 경우 문학과 어학을 동시에 배우며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고 다양한 진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어는 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영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을 경우 더 유창한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에 진출한 학과 선배님들을 보면 일반 기업, 언론, 법조계, 통역, 교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재학 중 다양한 문학 작품을 배우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사유의 폭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또한 길러지기 때문에 영어와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영어 관련 학과에 진학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어떤 진로든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 학문을 전공한다는 점에서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성 측면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학생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명확한 진로 목표와 계획을 하고 있다면 복수전공이나 대학원 혹은 전문 시험을 통해 어떤 진로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고민 중인 학생이라면 본인이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고민하며 영어영문학을 자신의 진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한 후 진학할 것을 권합니다.

**김영현:** 약 3년 전,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도 지금과 다를 것 없이 문과생은 전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조금이라도 전망 있는 산업에 종사하고자, 영어산업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4학년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제 학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배운 내용으로 현재 기계번역 산업에 종사하며,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과 기계번역은 문과 대학에서 흔히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과 공부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던 것이 살짝 아쉽습니다. 또한, 이 분야는 대부분 문과생에게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Q4. 영어관련학과의 동아리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영어영문학과:** 저희 학과의 경우 학과 차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모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뜻에 맞는 학생들이 모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금과 공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소모임을 소개해드리자면, 영문학 소모임이 있습니다. 운문, 산문을 창작하고 비평, 감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창작 시 낭독회인 poetry night 개최, 방학 중 글쓰기 스터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영어로 진행되고 5인 이하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몰입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과 내 ‘학교’ 제도로 새내기 시절 선배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특정 주제의 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학교, 사진 학교, 연극학교, 응원학교 등이 있으며 학기 말 각 학교별 활동 기록을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영어산업학과:** 영어산업학과 학술 동아리는 <영어 문화콘텐츠 랩(Lab)>, <영어교육 랩>, <코퍼스 분석 랩>, <기계번역 랩> 등이 있습니다. <영어 문화콘텐츠 랩>에서는 문학/비문학/공연예술/광고/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다양한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여 콘텐츠를 창작하고 출판합니다. <영어교육 랩>에서는 지역기관에 영어 교육 실습을 나가고, 온/오프라인 영어 교재 및 앱을 개발하며 영어교육 관련 창업 및 학술 연구를 진행합니다. <코퍼스 분석 랩>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코퍼스 분석 도구 사용 능력을 배양하고 빅데이터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계번역 랩>에서는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파파고와 같은 기계번역을 이용하여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번역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번역 랩> 활동을 하며 기계번역 실력을 인정받은 학생들은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영어산업학과 동아리 활동 사진>

## Q5. 영어관련학과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세요!

• **영어영문학과:** 많은 학생이 ‘영어영문학과에 가려면 꼭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학이나 영문학을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문과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능력이 필요하고, 영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영어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영문과에 오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영어산업학과:** 영어산업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제4차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 인문계열 학생과 이공계열 학생이 제4차산업혁명에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공계열 학생은 인공지능

관련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지만, 인문계열 학생은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인문학적 콘텐츠를 융합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Q6. 영어관련학과에 오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 목록을 알려주세요!

• **영어영문학과:** 꼭 원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한국어 텍스트를 통해 영어권 문화와 문학에 흥미가 있는 뒤 원서를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문학 작품은 ‘위대한 개츠비’, ‘빌러비드’, ‘My heart leaps up’입니다.

• **영어산업학과:** 영어영문학과에서 추천하는 도서 목록뿐만 아니라 제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책도 함께 읽어볼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영어산업학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학교 4년 동안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커리큘럼을 훑어보신 뒤, 과목 키워드와 관련한 도서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도서 키워드는 ‘기계번역’,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영어교육’, ‘코퍼스 영어’입니다.

## Q7. 영어관련학과에 어떤 학생들이 오면 좋을까요?

• **영어영문학과:**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영문과를 떠올릴 때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학이라는 학문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하는 동안 많은 양의 텍스트를 접하고 수많은 작가를 만나며 내 생각과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문학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기꺼이 영어영문학과가 최고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영어산업학과:** 영어산업학과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학과입니다. 문과 학생도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 기계번역 등의 기술을 바로 이곳, 영어산업학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문·이과의 경계를 허물고, 이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고 싶은 학생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기계번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영어산업학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10

## 역사학과

예비 역사학도를 위한 길잡이북

Part 1

인문 사회계열

## 예비 역사학도를 위한 길잡이북

▶ 염창섭, 박재홍 장학생

### Q1. (역)사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역사 이론을 기초로 하지만 인간사회 현상 전반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대학생-학부-때에는 지리적 분류의 경우 역사,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시대적 분류의 경우 고대, 중세, 근대, 현대사를 필수 과목으로 학습합니다. 또한 고고학, 문화사, 종교사 등을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시에는 세부 과목으로 좁혀 연구 주제를 선택해 공부하고, 대형식, 일방통행식 강의로 진행되는 학부와 달리 주로 석박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소규모로 특정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의 지도를 받습니다.

### Q2. (역)사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크게 교육계와 일반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는 임용고시와 교원 자격증을 통해 교내외 교강사로 진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학업을 이어가고자 할 때는 대학원으로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 후 시간강사, 조교수 등을 거쳐 정교수를 지망하기도 합니다.

일반계의 경우 필수 과목에 전공과목인 한국사가 들어 있고 문과라는 특성상 국어, 영어를 수능을 통해 경험했기에, 선택 과목 공략을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공시)에 응시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드물게 일반 기업에 합격하는 예도 있는데, 이는 상경 계열을 복수/부전공해서 기업 입사를 희망해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 Q3. (역)사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으로는 원전-사료의 원문-을 해석하며 자연스럽게 한문 및 외국어 실력을 배양할 수 있고, 논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쌓인 독해와 이해 능력이 각종 고사 시험-PSAT, LEET, 공무원채용 시험 등-문제 풀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실무와 연계하는 이른바 실용 수업의 수가 타과에 비해 적고, 이론 중심의 학습에 그치고 마는 학과의 분위기에 적응하게 되면 자칫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확실한 직업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논문이나 학회로 인해 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 Q4. (역)사학과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1. 넓은 범위의 세부 분야를 꼼꼼히 학습하고 비교해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마다 겹치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을뿐더러 시대별, 국가별 특징을 교수님들이 세세하게 비교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생 본인이 평소 정리해둔 강의 내용을 통합해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 수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고등학교보다 약간 난이도 높은 역사 수업을 수강했다는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입학 후 역사를 대학원에 가서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역사 수업을 수강했다는 처지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전공을 찾아 때로는 변경하거나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삼는 것을 권합니다.

3. 즉 인문 계열이라서 취업, 창업에 불리하다기보다는 머릿속에 남는 지식은 적는데 막상 연구주제를 뚜렷이 정하지도 못했지만, 이대로 사회에 진출하자니 부담돼 도피성으로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후배님들은 명확한 진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태도가 도리어 발목을 잡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Q5. (역)사학과는 대학별로 교과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체적인 전공과목은 기본적으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서양사, 고고학 등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별 교과과정의 차이는 교수님의 전공 분야에 따라 나타납니다. 교수님의 전공 분야에 따라 관련 전공과목이 개설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미국사, 프랑스사 등 나라별로, 또,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등 시기별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사회사, 정치사, 생활사 등 주제별로 교수님의 세부 전공 분야가 구분됩니다.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서 전공과목 소개나 교수님들의 세부 전공을 미리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학과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업이나 국제 학술 교류회가 있다면 관련 정보를 숙지하셔도 좋습니다.

### Q6. (역)사학과에서 답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사는 유적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공식 학술 활동입니다. 답사는 교수님과 학부생 모두가 참여하는 정기행사입니다. 대학마다 답사 진행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박 3일간 진행되는 답사는 학부생 졸업요건에 해당하며 최소 4회 답사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답사 중 방문한 유적에서는 학부생과 교수님의 발제가 진행됩니다. 즉,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색다른 학술 활동인 셈이죠. 더불어, 학부생 간 돈독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답사는 정기답사, 일일답사, 기획답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추가로, 학생회에서 답사지 추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답사 사진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 Q7. (역)사학과와 구체적인 전공과목이 어떻게 있나요?

앞서 언급 드렸듯이 전공과목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공과목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유형으로 나뉩니다. 중앙대학교의 전공과목을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필수 과목으로 역사고전의 이해, 역사지리와 문화유산, 역사학입문, 고고미술사학개론, 박물관과 문화기획, 한국사 사료강독, 동양사 사료강독, 서양사 사료강독이 있습니다.

전공선택 과목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사, 조선시대 생활사, 주제로 본 동양사, 중국 고대의 문명과 동아시아의 문화, 근대유럽의 형성과 발전,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중세동아세계의 형성과 발전, 중세봉건시대와 기독교 사회, 한국 중세사의 탐구, 동서문화교류사, 공간으로 본 서양문화사, 서양지성사, 인물로 본 조선시대사, 인물로 본 동양사 한국 현대사의 탐구 등이 있습니다.

### Q8. (역)사학과에서 배우는 전공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역사는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점이었다면, 대학에서의 역사는 기존 역사학자들의 이론과 논리에 대해 이해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기도 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어떤 시기부터 역사 혹은 한국사라고 볼 수 있는지 기존 통념처럼 여겨진 역사관에 대해 물음을 던져봄으로써 자신만의 역사관 정립을 돕습니다.

또한, 특정 시기, 특정 나라의 역사를 각종 사료와 유물, 유적 등을 통해 대해 심도 있게 배우기도 합니다. 특히, 전공과목 중 화릉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 강독은 사마천의 사기나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1차 사료를 직접 해석하며 사료 분석력과 이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추계 정기답사 홍보영상 중>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답사지 추천 카드뉴스>



# 11

## 행정학과

홍설빔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면? 답은 행정학과!

Part 1

인문 사회계열

## 홍설빔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면? 답은 행정학과!

▶ 낭낭이, O장학생, L장학생

### Q1. 행정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행정학이란, 공익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와 사회 부문 간의 균형적 발전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응용 사회과학을 말합니다. 실제로 행정학과의 경우, 깊은 학문적 성찰로 다듬어진 정교한 이론을 국가정책으로 개발하고,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인재, 급변하는 환경에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포용과 상생에 바탕을 둔 폭넓은 안목을 갖추도록 하여 공공부문과 글로벌 사회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과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학습이 가능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개론/정책학원론과 같은 기초적인 과목부터 시작하여, 인사행정론/재무행정론/지방행정론/관료제론/공공조직관리론/정책분석론/규제정책론 등의 과목을 커리큘럼으로 두어 폭넓은 공부가 가능합니다.

### Q2. 행정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행정학과’라고 한다면 흔히 공무원을 떠올리시죠. 모두가 공무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행정학과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이기도 해요. 행정학과에서 배울 수 없는 인사행정을 통해 인사관리역량을 습득하여 기업에 유능한 인사노무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행정법과 민법, 헌법과 같은 법률을 배워 법률사무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꼭 필요한 통계데이터를 관리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진출할 수도 있지요. 이 외 공공회계, 세무회계 등을 공부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꿈을 키워갈 수도 있어요. 이처럼 행정학과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과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답니다.

### Q3. 행정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학과가 갖는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모두 배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진로가 불분명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의 신분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따라서 한 가지 학문 분야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양한 학문을 배워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학과에서는 정치학, 법학, 재무, 인사, 조직관리, 사회 현상 통계학, 정책, 환경정책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부분으로 진출하고자 할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학과 진학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거

라고 확신해요! 반면 단점은 그만큼 나의 선택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분야를 공부하기 때문에 구체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학과 내에서 다양한 강의가 열리고 해당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타과를 복수 전공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 Q4. 행정학과 = 행정공무원 양성 학과? NO!

많은 학생들이 각 학과에 대해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수리도 잘 할 것만 같고, 경영학과 학생들은 항상 주식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같은 거죠! 그렇다면 행정학과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아닌 오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가는 학과”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가 공무원인 학생들만 행정학과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행정학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물론 공무원을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을 희망한다고 하면 보통 일반 행정직을 생각하지만 실제 행정학과 출신들은 재무처, 인사처, 법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직렬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따라서 행정학과가 공무원 양성 학과라는 말은 선입견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행정 분야를 모두 배우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이 온다면 다른 학과보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행정학과에서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행정학과에 오면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Q5. 행정학과?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사실 행정학과는 타학과와 달리 하나의 전공을 전문적으로 깊게 파고드는 학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질리지 않게 배울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하죠. 행정학과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주기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나라가 아프면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정책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비판적 사고,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이론을 주변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혹은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여 문서화 하는 것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행정학과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Q6. 행정학과 관련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행정학과’라고 하면 문서화하는 것만을 생각하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도로 자격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외 행정학은 폭넓은 학문이기 때문에 부·복수, 연계전공을 다양하게 하는만큼 관련 자격증도 굉장히 여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정책분석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조사방법론과 계량행정론처럼 통계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조사분석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무법인 혹은 기업처 인사담당자가 되고 싶다면 <인사노무사무원>과 <세무회계>를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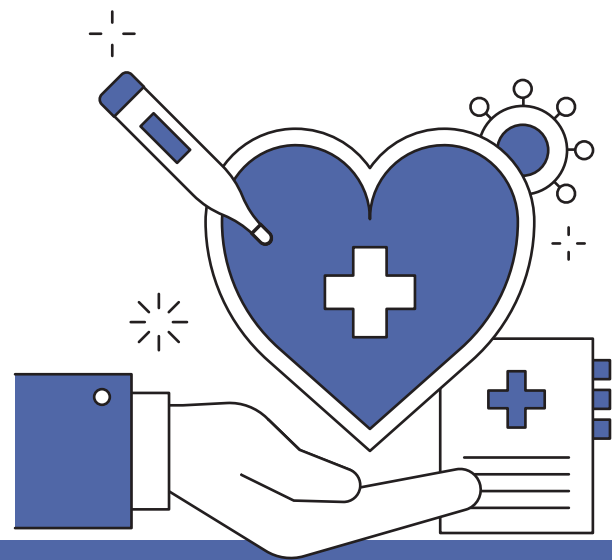
### Q7. ONLY 행정학과만의 매력 포인트

행정학과만의 매력 포인트로 우선은 우리나라의 정책을 다루는 몇 안 되는 학과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법이나 정책을 다루는 학과는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차별성을 띄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은 물론, 이를 넘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배우는 과목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들을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정책을 디자인하여 발표한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학과이기에 이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로 폭넓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학은 한 가지를 중심으로 깊게 배우는 순수 학문보다 비교적 넓은 시야를 가진 실용(응용)학문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 인사, 재무, 경제, 정부 등 행정학 내의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학습할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른 학과와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서로 연관시키기 좋습니다.

### Q8. 행정학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과 소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와 공정”입니다. 행정학과는 다양한 한 부문, 특히 국가 부서를 이끄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사회 정의와 공정, 약자 보호를 신념으로 소명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행정학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는 추후 사기업과 공직 중 어느 부문에 진출함과 무관하게 항상 강조되는 가치입니다. 그만큼 행정학과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세대 갈등이 고조되는 우리 사회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희망과도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행정학의 이념은 누군가에게 다시 재기하고자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행정학과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 12

## 간호학과

간호대생의 금빛 상담소

Part 2  
자연 계열

## 간호대생의 금빛 상담소

▶ 권혜린, 박나영, 이동영, 이정선 장학생

### Q1. 간호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간호사는 1차 의료 영역에서 활동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간호학과에서는 대상자의 질병 예방, 건강증진, 건강회복 및 재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1학년 때는 교양과 간호와 관련된 기본 지식, 해부생리학, 병리학, 재난간호, 다문화 간호 등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는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기본간호핵심술기를 배우게 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20개 정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병원 실습이 시작됩니다. 모든 실습 과목마다 환자 한 명을 정해 간호사 레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학년이 4학년보다 더 어려운 학년이라고 하지만 환자를 직접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새로운 동료를 사귄 수 있어 재밌기도 합니다. 4학년은 다음 해 1월에 있는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Q2. 간호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간호사,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을 간호하는 산업간호사,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뒤 지역주민을 간호하는 보건간호사,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교는 보건교사가 될 수 있고,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조산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호장교 등 더 많은 직업이 있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병원간호사가 되고 부서별로(수술실, 병동, 중환자실 등) 배치되어 간호를 수행하게 되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보험 심사 간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임상 경험은 간호사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연구원 등 다양한 회사에서 귀중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진학 시 이 부분도 참고하여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간호학과 취업률은 90% 이상으로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취업할 수 있지만 복지와 연봉이 좋은 병원을 원한다면 해당 병원에서 요구하는 학점, 토익 등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Q3. 간호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호학과는 장점은 과목마다 주어지는 조별 과제를 통해 동기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습 현장에 가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흥미롭고 의료진들의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덤으로 얻는 소중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조별 과제로 인해 대인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학기 중에 임상 실습과 전공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 학기당 500개 이상의 의학용어를 외워야 하고 방학 때는 토익과 같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아야 해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 Q4. 간호학과 실습은 어떤 것을 배우나요?

2학년 때는 교내에서 기본간호핵심술기를 배우고 3학년부터는 총 1000시간의 시수를 채우기 위해 임상(병원) 실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 ① 교내실습

-기본간호학: 간호학 입문 과목으로 기본적인 간호 술기를 배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간호핵심술기’를 검색해보세요.)

-통합실습: 임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사정(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간호술기를 연습함으로써 병원 실무에서의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함양합니다.

-시뮬레이션 실습: 가상 시나리오로 만들어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를 수행하고, 디브리핑을 통해 임상 지식과 간호기술을 습득합니다.

#### ② 과목에 따른 임상실습 기관

-성인간호: 다양한 부서의 일반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특수부서, 응급실

-모성간호: 분만실, 산과, 부인과

-아동간호: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지역사회간호: 보건소

-정신간호

-노인간호: 요양병원

#### 실습과 강의가 어떻게 학기 중에 진행되나요?

A 대학교: 8주 이론 수업(총 16주의 강의 분량 진행, ‘더블 강의’ 라고 함) > 6주간 임상 실습(1일 9시간)

B 대학교: 6주 더블 강의 > 6주 실습 > 3주 이론(싱글 강의)

C 대학교: 1주 싱글 강의 > ‘2주 실습 후 2주 더블 강의’ 반복(중간에 중간고사,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 시험 있음)

#### 병원 실습 후기

-수술실(OR)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온도를 18°C로 유지하기 때문에 추위를 타거나 피 냄새를 못 맡는다면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환자와 보호자의 컴플레인 및 기타 행정업무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아청소년과(PED)

대부분 고열, 장염으로 입원하고 병원에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교육을 위해 놀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주사를 제거하는 것도 무서워하여 실습생이 아동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NSICU)

뇌출혈과 관련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의식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많았습니다.

Q5. 간호학과 교직 이수는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교직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교로 진학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학년의 성적을 바탕으로 일부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추가로 이론 및 실습 과목을 수강하면 됩니다. 이론의 경우 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임용고시 대비를 위해 모든 시험이 논술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실습은 교육봉사와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봉사의 경우 졸업 전까지 학생들이 각자 교육 봉사를 진행할 기관을 찾아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학교현장실습 과목은 흔히 말하는 ‘교생 실습’으로 4학년에 나가기 때문에 3학년부터 실습 학교를 구해야 합니다. 보통 모교를 실습처로 구하기 때문에 모교와 우선적으로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직반에 들어오게 되면 이수해야 할 학점이 늘어나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부 시절에 교직 이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교직 이수를 하여 진로 방향을 넓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 |      |      | 아동   |      | 지역   |
| 2 | 아동   | 여성   | (더블) | 여성   | (더블) |
| 3 |      |      | 정신   | (더블) |      |
| 4 |      |      |      |      | 성인   |
| 5 | 정신   |      |      |      |      |
| 6 | (더블) | 성인   |      |      |      |
| 7 |      | (더블) |      |      |      |
| 8 | 교양   | 지역   |      |      |      |
| 9 |      |      |      |      |      |

<더블 시간표>

Q6. 어떤 학교의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대병원의 유무를 중점으로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자대병원이 없다면 임상 실습지가 여러 지역으로 배정되어 숙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시에 자대병원이 있는 학생은 학부 성적이나 취업 스펙이 비교적 좋지 않더라도 대부분 자대 병원으로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실습실>



<아동 실습실>

Q7. 간호학과에 가장 잘 적응하는 성격과 남학우도 잘 적응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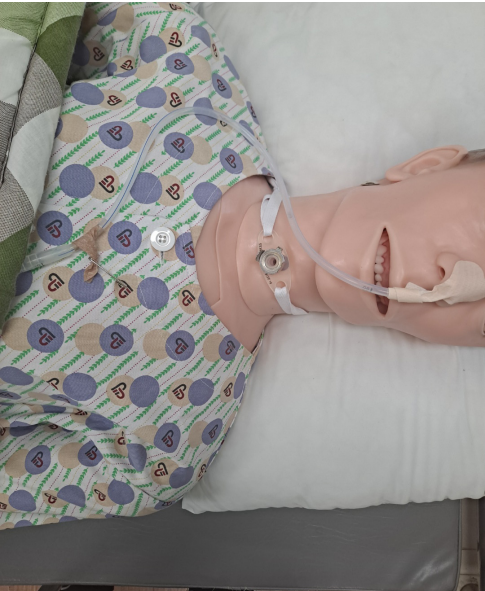
긍정적이고 인사를 잘하는 성격입니다. 저만의 팁을 소개하자면 교수님들께 혼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가 교수님과도, 학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여학우의 수가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학우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여학우가 먼저 다가와 주는 경우도 많으니 적응과 관련된 고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Q8. 간호학과에 진학한 이유와 진학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진로 선택 시 전문 직종을 우선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률이 좋다는 간호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니 학문에도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자 곁에서 일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 여러 번 고민하였지만 아픈 사람을 위해 간호하고 싶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간호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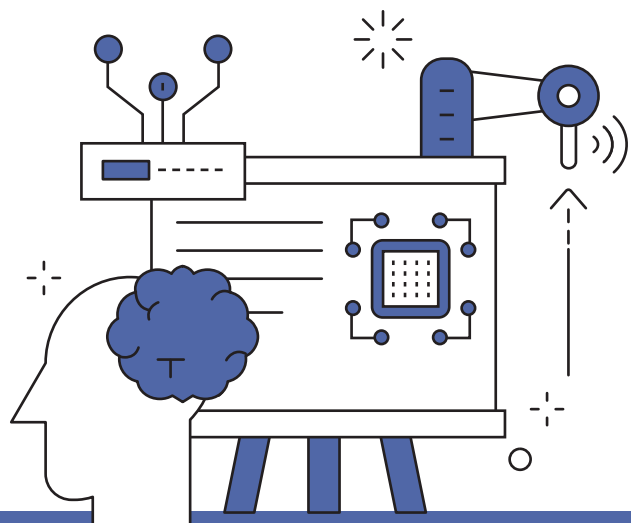
수시 위주로 준비하기 위해 1학년 때부터 내신을 챙겼고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를 홍보하고 진학 상담을 도와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학생부와 구술면접으로 진행되는 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동아리 활동으로 돌발 질문에 대해 대처 기술이 훈련되어 있어 편하게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마지막에 면접관분께서 상대방 눈을 편안하게 마주친다는 말을 들었는데 특별하게 질문이 어렵지 않다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면접 팁을 알려드리면 친구들과끼리 모여 면접 스테디를 하거나 자신을 비디오로 찍어 안 좋은 대화 습관을 고치는 것이 도움 됩니다.



<기관절개 & 위관영양 마네킹>



<정맥 주사 마네킹>



# 13

## 공학과

공대에 대한 모든 것!

Part 2  
자연 계열

## 공대에 대한 모든 것!

▶ 김00, 김은진, 김진호, 박승, 박재범, 송아현, 이가희, 이시윤 장학생

### Q1. 공학 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공학 학과는 화학, 물리학 및 생물학의 기초 과학을 기반으로 공학 계열의 산업과 전반적인 이론 및 응용 기술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학과입니다. 대학 마다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과 등을 기반으로 건축학과, 환경공학과 등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 각 학과의 기초 과학 이론을 1학년 때 학습하고 2학년부서는 공학 전문 기술자로서의 산업 현장의 올바른 전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연구 및 실습도 진행됩니다. 학과마다 세부적인 전공 과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학과 커리큘럼을 확인하여 본인의 구체적 전공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즉, 공학 학과는 공학적 기초 원리를 학습하고 개발, 설계, 운영 등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학 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Q2. 공학 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공학 학과는 졸업 후 진로가 매우 다양한 편이며 높은 취업률을 보입니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 기계 및 항공, 화학 및 환경 등 공학 학과와 인접한 학문적·산업적 응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관련 분야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공학 학과를 졸업하면 국·공립 연구소 및 산업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연구원, 교수 등의 연구 개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졸업 후 취업을, 대학원 진학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선배와의 멘토링과 같은 교류 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진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대학 재학 동안 전공 수업을 들으며 세부 전공 진로를 확립하고 취업 정보 및 적성을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 공학 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학 학과는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 과학과 공학 요소 학문을 기반으로 전공 교과목을 다양한 설계, 실험 및 실습과 함께 진행됩니다. 공정 및 설계, 제어 및 분석, 응용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전문화된 공학적 지식과 공학자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전공이 심화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공학 분야 대부분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습량과 실험 등의 실습에 쏟아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학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며 복합적인 능력과 다각화된 시각 및 사고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배울 수 있는 학문 분야와 연계되는 분야가 다양하여 진출할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합니다. 본인

학과를 기반으로 희망하는 분야로의 연계가 용이하며 한 분야의 학문을 깊게 심화 학습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학문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학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이론과 실습은 최신 기술 및 분석, 설계의 경험을 넓히고 팀 프로젝트의 경험으로 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 지향적인 공학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Q4. 공학 학과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과정은 무엇일까요?

공학 학과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과정을 생각해보았는데,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정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꼽자면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수학에 대한 이해도와 끈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수학 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학 수업을 들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학수학을 배우면서 고등학교 기초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처음부터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보통 1학년때 수강하는 전공기초 수업에서 대학수학과 과학을 배우는데요. 1학년때 놓아버린 전공기초 과목들을 추후에 재수강 등을 통해 바로잡기는 힘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적인 지식이 되기에 제 때 열심히 듣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학 전에 대학수학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봤는데, 결론적으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고등과정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입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등수학에 대한 이해도는 기초적인 작업일 뿐이고,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보다 훨씬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끈기있게 공부하는 자세가 공학인에게 추가적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Q5. 공학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김00: 우선 동아리는 크게 연합 동아리, 중앙 동아리, 과 동아리로 나뉩니다. 연합 동아리는 한 대학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중앙동아리는 교내에서 학과 상관 없이 이루어진 동아리이며 과동아리는 한 학과 내에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이때 공학 전공 관련 동아리로는 학교마다 다 다른 동아리가 있는데, 현재 저희 학교의 중앙 동아리로는 컴퓨터 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보다 전공 관련인 과 동아리로는 학술분야로 CAD/CAM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 CAE TOOL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로봇설계와 창의 설계 및 시스템 제어를 위한 동아리, 건축설계 및 공모전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동아리, 식품공학의 토론과 학술 활동을 위한 동아리, 프로그래밍 학술 동아리, 로봇 연구회, 자동차 동호회, 데이터 학회 등 매우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재학하면서 할 수 있는 전공 활동 중에는 동아리 외에도 학부연구생, 공모전 참여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학부연구생을 원한다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실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론으로만 배운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학문적 견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모전을 원한다면 올림피아드, UCC 영상 제작, 연구주제 및 정책기술 공모전 등 많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6. 공학 학과는 영어 실력이 중요한가요?

김00: 영어는 전공 관련 없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 분야 전공과목에서도 영어의 필요성은 전공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더욱 생생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몇몇 과목의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기에 영어의 실력이 수업을 듣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해외의 최신 지식을 번역 없이 습득할 수 있으며 외국 전문가들과도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교환학생이나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영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 요구되며, 나아가 취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Q7. 공학 학과도 과마다 배우는 것이 많이 다른가요?

김00: 물론 공학 학과들은 기초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토대로 배우는 학문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공지식에 대해서 학과마다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학년 때 공학 학과 학생들이 미분적분학과 같은 수학 과목과 여러 과학 기초지식들을 배우는 것은 일부분 동일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던 물화생지로 나누자면 과마다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와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 화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 생물학과 화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 등등 각 과에 따라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과장하자면 같은 공대 옆 강의실이어도 다른 과가 어떠한 내용을 전공수업에서 가르치고 배우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같은 이름을 가진 학과라도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본인과 다른 학교 같은 학과에 진학한 경우, 커리큘럼이 달라 전체적인 틀은 같더라도 중점적으로 배우는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Q8. 공학 학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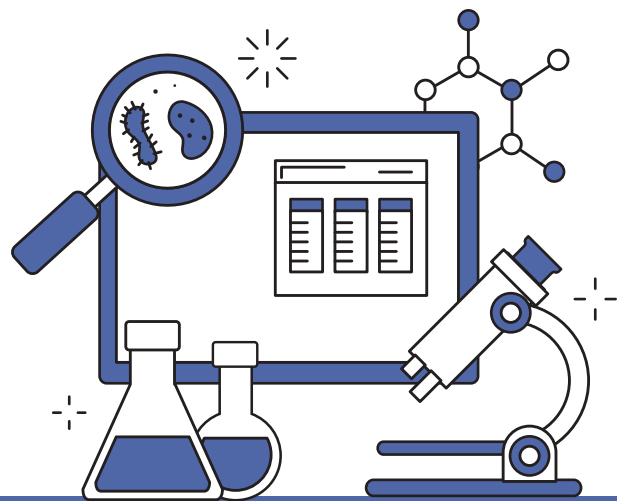
김00: 공학 학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공학 학과 내에서도 나뉘어지는 다양한 학과에 따라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수학과 물리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팀워크와 협동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학 학과를 세분화 하여 설명드리자면, 기계 공학과와 경우 기술 설계 능력과 기술 분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전자 공학과와 경우 창의력과 꼼꼼한 성격이 중요합니다. 건축학과와 경우 미술적 감각과 복잡한 문제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밀 화학과의 경우 분석적 사고력과 유연성, 주도성 등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공학과와 경우 공학과 과학에 근거한 논리적인 추리력과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즉, 공학과는 물리·화학적 제어, 예측을 통해 목적에 부합한 공정 및 소재를 설계하고 응용하는 업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학자 양성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전공 이론의 학문적 능력과 전공 실습 능력을 동시에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공학 분야에 기초를 둔 공업의 동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응용하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전공 교과목의 설계, 실험 및 실습을 학습함으로써 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공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기를 수도 있습니다.





# 14

## 생명공학과

BIO와 함께 꿈 꾸는 미래

Part 2  
자연 계열

## BIO와 함께 꿈 꾸는 미래

▶ KSY, H, J장학생

### Q1. 생명공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KSY:** 생명공학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현상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과학적인 발견에 공학적인 시스템 및 응용원리를 접목하는 학문입니다.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소재를 개발하는 첨단융합 학문을 추구합니다. 또한 각종 질병 치료제 개발은 물론 생리활성물질, 화장품, 식품 및 의료와 환경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BT), 첨단 바이오소재를 개발하는 나노기술(NT), 생명정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정보기술(IT)을 융합하여 이를 실용화합니다. 생명공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1학년 때는 자연계열, 공학계열의 다른 학과와 유사한 과목을 배웁니다. 또한 직접적인 과정보다 물리, 화학, 생물, 미적분학과 같이 일반적인 기초 과목을 배웁니다. 2학년 때는 생화학, 일반미생물학, 생명공학개론과과 비슷한 생명공학입문 과정을 배웁니다. 2학년 때는 대부분 1, 2학기 연속 과정으로 배웁니다. 3학년 때는 본연의 전공 과정을 배웁니다. 분자생물학, 생명공학전공실험, 신경과학 등이 전공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으며, 연구실 실습 과정을 통해 인턴십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졸업 후 진로를 생각하여 바이러스와 숙주, 기능유전체학, 생물의약개론, 식품발효공학 등의 고급 과정의 교과목들을 수강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 Q2. 생명공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 하나요?

**H:** 생명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학사학위를 살려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크게 연구 개발 부서와 경영부서로 나눌 수 있어요. 생명공학과 보건 의료, 식품, 농·축산의 세부 분야로 나뉘질 수 있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융합분야로는 나노기술, 재료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사졸업 후 제약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 부서라면 신약발굴팀, 공정팀, 임상팀으로 나뉘질 수 있어요. 대부분 신약발굴팀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임상팀은 의료계 자격증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공정팀은 비의료계 학사학위의 신입사원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공정팀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정팀은 의약품의 품질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QC(Quality Control) 부서와 품질을 전 개발 과정동안 보증해주는 QA(Quality Assurance) 부서로 나뉘질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신약발굴단계로 취업하고 싶다면 대학원 진학은 불가피합니다. 생명공학은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 새로운 사실들도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학부지식만으로는 개발하기는 힘들어요. 본인의 관심사와 관심 있는 회사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면역학, 유전학, 단백질학 등등 다양한 분야 중에서 잘 선택하세요.

### Q3. 생명공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J:** 생명공학과와 장점은 기초 생명과학 분야뿐 아니라, 의학, 약학, 농학, 환경학에 이르는 다양한 생명공학분야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학부생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연구원으로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공학과에서는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과학적, 사회적 문제를 공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와 노화문제,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식량자원의 무기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 건강한 삶을 지킬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 문제, 인류의 생활 터전이자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은 생명공학분야에서 담당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생명공학과를 졸업하면 학계, 연구소, 의학, 환경, 식품, 비료, 유제품, 화장품 등 기업계, 변리사, 농업·환경·산림·보건직 공무원 및 공사 등의 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학부 졸업이라면 대개 영업, 생산, QC/QA, 기획 관련 부서 같은 전공과 다소 동떨어진 분야에 지원할 수 있으며 생명공학과는 학부 졸업만으로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Q4. 전공수업 중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수업은 무엇인가요?

**KSY:** 개인적으로 저는 전공수업 중 하나인 바이오생활융합개론 수업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수업에서 면역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신체 내의 면역세포들이 일정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업 중에 교수님이 보여주신 참고용 TV 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면서 매우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기증받은 대변이 각종 치료제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고,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여러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면역체계를 활성화하고 암 치료에도 유용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밝혀지면서 면역 항암제의 새로운 바이오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커다란 학문적 호기심으로 다가왔습니다. 1학년 때 들었던 입문 수업이었지만, 다양한 분야에 노출이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수업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 Q5. 학부 연구생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 학부 연구생이란 연구실에서 교수님, 대학원생과 함께 연구하는 학부생을 말합니다. 학부 연구생이 되면 연구실 생활을 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해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전반적인 랩실 생활을 경험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 연구생 생활은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기 중에도 개인 상황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부 연구생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 개인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연구실에 직접 컨택하는 것입니다. 담당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일정을 잡고 면담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부 연구생을 하는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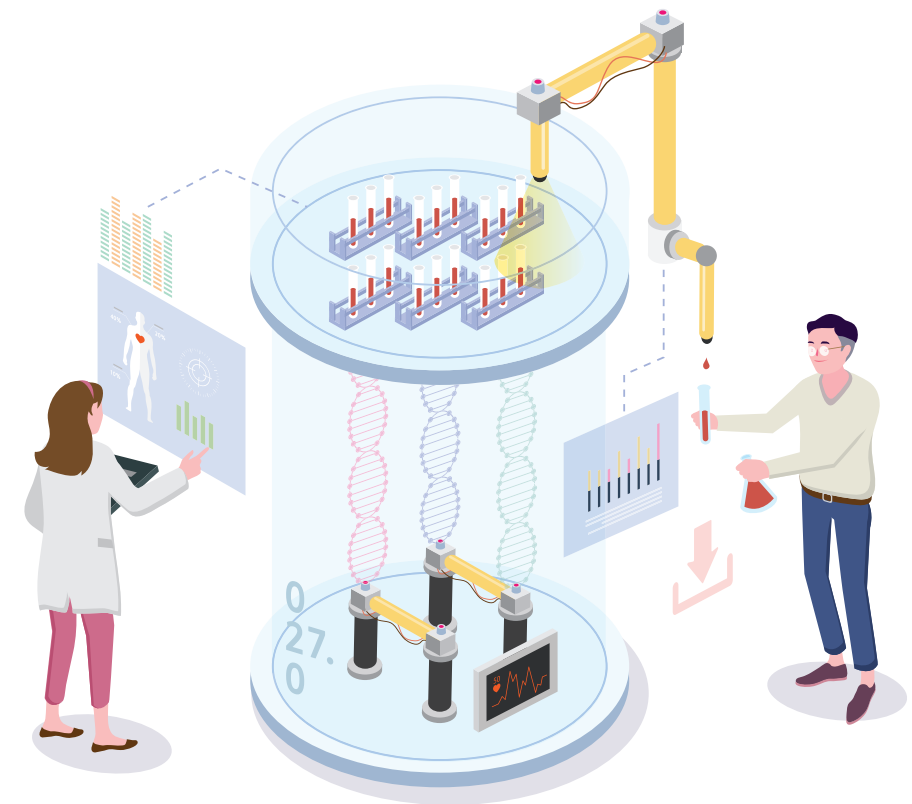
구들은 빠르면 1학년부터 학부 연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또는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절차에 따라 지원 후 합격하게 되면 학부연구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한다면 학부 연구생 경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 Q6. 다전공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H: 다전공이란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복수 전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전공이기 때문에 각각의 졸업 이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각 학과마다 졸업 이수조건이 매우 다르지만 크게 영어성적, 논문작성, 전공 이수학점, 교양 이수학점 등이 있어요. 이수학점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문작성을 위한 과목과 같이 소수의 인원만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신청해야 해요. 다전공생들은 주 전공 학생보다 수강신청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수강신청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몇몇 과목들은 이름이 비슷하거나 커리큘럼이 비슷해서 동일과목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목들을 잘 살펴보고 대체하여 수강신청에 꼭 성공하세요.



<생명공학 연구실 실습 사진>





# 15

## 의약학부

의약학부의 모든 것!

Part 2  
자연 계열

## 의약학부의 모든 것!

▶ 박수진, 김소원, 강민지, 김민정 장학생

### Q1. 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 **약학과:** 통합 6년제를 기준으로, 1-2학년은 약학의 기초가 되는 생물이나, 화학, 유기화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4학년이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전공을 배우게 됩니다. 병태생리학, 약리학, 면역학, 약품합성학, 약제학 등을 배우게 되고 학교별로 다르지만, 각 과목별로 실습과목도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5학년이 되면 약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약물치료학을 배우고, 독성학 등 심화 전공 과목을 배웁니다. 6학년이 되면 약국, 병원, 연구실, 제약 회사에서 실습을 하고 약사법, 의약품 품질관리/제조관리를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의학과:** 의과대학은 의예과 2년+의학과 4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예과는 의학과(본과)에서 본격적으로 의학을 배우기 전, 준비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인 영어, 생명과학, 화학을 배우고 교양수업을 듣고 의학 이외의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취미도 개발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의학과에 접어들면 1학년 때에는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 등 각종 기초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에는 그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진짜 환자가 열이 나서 오면 어떤 병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요. 3, 4학년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실습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전 경험을 쌓는 시기예요.

• **수의학과:** 수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제의 대학이에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예과 때는 생물학, 유기화학 등 기초과목을 배우고 본과 1~2학년 때는 생리학, 해부학 등 좀 더 심화된 전공과목을 배웁니다. 본과 3학년 때는 내과, 외과 등 임상과목을 배우며 본과 4학년 때는 동물병원 로테이션 실습을 하며 어떻게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참여해 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 **한의학과:** 한의과대학은 한의예과 2년, 한의학과 4년 총 6년의 과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한의예과: 한의학과로 진급하기 전 2년간의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교양과목을 폭넓게 배우으로써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교과목을 열거하면 한의학의 기초과목인 한의학 개론, 원전(황제내경), 본초학 등과 의학의 기초 과목인 생물학, 화학, 생화학, 그 외 교양 과목으로 영어·중국어 등의 외국어가 있습니다.

-한의학과: 본과 1-2학년은 해부학, 조직학, 발생학 등 의과학/한의학 기초를 학습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해부학 실습을 통해 인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고찰을, 경혈학, 침구학 실습을 통해 혈자리의 해부학적 위치와 기능, 침 놓는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본과 3, 4학년은 부인과, 침구학,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 본격적인 임상 과목에 대해 공부합니다. 특히 본과 4학년에는 한방병원 실습을 통해 환자와 대면하며 지난 5년간의 학습에 대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Q2. 전공별 졸업 후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 **약학과:** 크게 보면 약국에서 일하는 페이약사와 개국약사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약사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제약회사나 공직약사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약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점차 약국 외에 병원, 제약회사, 공직약사로 진출을 장려하는 추세입니다. 병원에서는 1년코스인 전공약사를 수료할 수 있고, 전문약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신약 허가와 관련한 업무이지만, 연구/개발, 마케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약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공무원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 **의학과:** 옛날에는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가 되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진로가 많답니다. 의학의 기초학문인 생화학, 생리학 등을 의대에서 가르치는 ‘기초의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의학 관련 기자나 방송인, 작가 모두 가능해요. 의대 졸업 후 로스쿨에 가서서 의학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되신 분도 보았어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학은 앞으로 많은 분야와 접목되어 의학과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직업도 확대될 거예요.)

• **수의학과:** 수의사의 진로는 크게 임상과 비임상으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 졸업 후 임상 분야로 진로를 정합니다. 임상에는 소동물 수의사뿐만 아니라 산업 동물 수의사, 특수동물 수의사 등이 있고 소동물 수의사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비임상에는 수의직 공무원, 연구원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직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한의학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다수의 한의사들은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통해 환자를 보는 임상 한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임상 외에도 본인의 지식과 면허를 활용할 수 있는 무수한 분야가 있고, 그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구 진로’는 비임상 분야의 큰 축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정부 출연 한의학 연구기관이나 자생척추관절연구소와 같은 사설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한의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 한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국가나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 소속 되어 정책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현해나가는 등 직렬에 따라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보완, 대체의학에 대한 세계의 수요 증가로 인해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진출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Q3. 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 약학과

**장점:** 약학은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약을 접하고 있습니다. 약 학과에서는 약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또한 그것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이는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단점:** 일단 암기량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해 없이 암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점이 약학을 공부할 때 힘들 수 있어요. 생체 환경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원리를 기반하여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황에 따른 작용기전과 약 이름을 암기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천연물 기반 생약, 미생물 이름 등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공부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 • 의학과

**장점:** 의학과는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터무니없는 비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아지가 강아지를 치료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감히 사람이 지식을 습득해 같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단점:** 사람의 인체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에 학문 내용도 어렵고 깊이가 깊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오죽하면 의대 적성은 피를 잘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공부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있을 까 싶어요.

#### • 수의학과

**장점:** 수의학과를 입학하게 될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할 때 매우 다양한 분야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환자가 귀여운 동물들이다 보니 진료할 때 미소가 지어질 때도 많아요.)

**단점:** 아무래도 해야 할 공부가 많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작은 실수가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계열에서 공부량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 • 한의학과

**장점:** 한의학과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합당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진료하죠. 또 개체성을 중시하는 의학이라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어느 증상에는 어느 치료법이라고 정해놓고 한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따라, 혹은 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치료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학과에의 큰 매력이에요.

또한 다른 직역에서는 쓸 수 없는 침, 뜸, 한약, 약침, 부항을 다룰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예요. 다양한 도구와 술기를 통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은 당연하구요.

**단점:** 한의학에서 흔히 쓰는 몸이 뜨겁고, 차다, 허(虛)하다, 실(實)하다, 비위(脾胃)가 약하다 등의 개념은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하기보다 인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양철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친구들에게는 낯선 표현들이 많다보니 초반에는 한의학적 개념이나 용어가 한의학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 Q4. 학과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잘 맞나요?

• **약학과:** 과학, 특히 생물이나 화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잘 맞다고 생각해요.

또한 보건의로 계열의 경우, 사람을 돕는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학생의 경우 약사로서 일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을 돕는다는 뿌듯함과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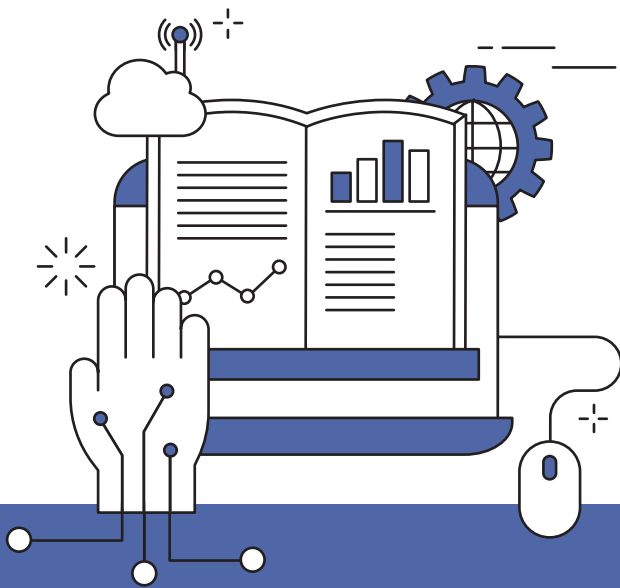
• **의학과:** 의학과는 의사를 양성하는 곳인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꼼꼼함을 갖추어야하는 것 같아요. 위중한 환자 분일수록 매시간, 매분 상태를 체크해야 하며 기계가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술기를 행하기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죠. 꼼꼼함과 동시에 결단력도 갖추어야 해요! 의과대학에서 배운 수많은 지식 중 현재 환자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주치의인 나뿐이기 때문이에요.

• **수의학과:** 학과 특성상 동물을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요. 하지만 수의사라는 직업이 동물을 위한 직업임과 동시에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어서 동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생명공학 등 연구직을 원하는 학생에게도 추천합니다.



• **한의학과:** 내가 배우는 것에 대해 스스로 질문거리를 만들어내고 질문의 답을 찾아나가길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맞는 곳이에요. 한의학과를 나와서 한의원, 한방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한의학자’처럼 어렵고 낯선 한의 학언어를 첨단과학과 수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나가는 사람, 해외에서 다른 직 역들과 함께 통합적인 진료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직업인만큼, 도전을 통해 본 인의 직역을 확장시켜나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 16

## 소프트웨어학과

썸.. 근데 이제 컴퓨터를 곁들인..? 여긴 소프트웨어..

Part 2  
자연 계열

## 썸.. 근데 이제 컴퓨터를 결들인..? 여긴 소프트웨어..

▶ 금예인, 김신영, 박민주, 박진태, 이삭 장학생

### Q1. 소프트웨어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소프트웨어학과는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구현, 그리고 유지 및 운영에 대해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다양한 Computer Science 지식과 IT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각 학교별 커리큘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학과에서 배우는 대표적 과목으로는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료구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대개 입학 시, Python 또는 C언어처럼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후 컴퓨터에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조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구조와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합니다. 더불어 CPU와 메모리 등 컴퓨터의 내부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 배우는 컴퓨터구조와, 이와 연계되어 프로세스 처리를 다루며 모든 컴퓨터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운영체제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통계학 등 수학적 지식을 공부하기도 하며,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기술에 대해 배우기도 합니다.

### Q2. 소프트웨어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컴퓨터 및 IT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나날이 광범위해지는 만큼, 소프트웨어학과와 관련된 진로와 진출 분야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웹 사이트를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웹 개발자가 있습니다. 웹 개발자는 크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프론트엔드와, 서버 및 DB를 다루는 백엔드로 나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는 풀스택 개발자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와 iOS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될 수도, 게임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DB 개발자나 IoT 기술의 핵심인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임베디드 개발자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나,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AI 개발에 관심이 많다면 인공지능 전문가, 보안에 관심이 많다면 정보보안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엔지니어,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등 다양한 직종이 있으니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차근차근 진로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Q3. 소프트웨어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학과의 장점으로는 이름에서 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장점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디지털화 될 예정이며 현시점에도 디지털화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은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적 흐름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의 단점으로는 논리적 사고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논리적 사고는 단번에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많은 인내와 긴 시간 동안의 논리적 사고를 위한 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Q4. 소프트웨어학과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과정은 무엇일까요?

먼저, IT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컴퓨터 공학에 진학하여 가장 크게 느낀 생각은 정보가 많을 수록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알아가려면 풍부한 IT지식을 이용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와 어떤 방향으로 하고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알아도 풍부한 IT 지식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컴퓨팅 사고를 키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컴퓨터 시간에 배운 블록 기반 코딩사이트인 스크래치에서 배운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동작에 대해 코딩을 하려면 그 동작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단계별로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코딩을 접하지 못한 친구들은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재미있는 블록 기반 코딩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공학과로 진학하기 전 코딩을 미리 접해보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C언어나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미리 기본기를 잡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학과에 들어와서 처음 감을 잡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도 따라오기 버겁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를 더욱 수월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미리 C언어나 파이썬을 통해 백준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코딩 문제를 풀면서 기초를 다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 Q5.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는 무엇이 있나요?

프로그래밍언어는 매우 많지만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TIOBE에서 선정한 2022년 2월 기준 점유율 상위 5개 프로그래밍 언어는 'Python', 'C', 'Java', 'C++', 'C#'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많은 프로그래머가 사용한다고 좋은 언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개발 분야(웹, 데이터, 게임 등)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여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Q6. 소프트웨어학과는 문과인데 들어갈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문과라도 이과인 소프트웨어학과에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전과'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1학년부터 학점 관리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인기 많은 학과로 전과는

학점을 기준으로 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점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학점관리와 더불어 전과 대상 학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활동들을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점이 비슷하다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얼마나 해당 학과 진학에 뜻이 있고 열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함축하여 자신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많을수록 글의 재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의 ‘비전공자 프로그램 전시회’, ‘데이터 회사 인턴 경험’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 Q7. 소프트웨어학과의 관련된 동아리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관련 동아리 중에서는 첫 번째로 게임개발 동아리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메인 활동으로는 방학동안 동아리 내 게임개발경진대회를 열어서 부원들과 게임을 직접 개발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이어도 같이 배우면서 할 수 있고, 꼭 프로그래밍이 아닌 기획이나 그래픽 파트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내에서 여러 스터디 모임이 열리는데, 이 스터디를 통해 게임 개발을 배울 수 있어 신입부원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또 다른 활동은 코딩교육 봉사 동아리입니다. 학과 학생회와 서울시 기관과 연계해서 초중등 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봉사를 위해 부원들이 다같이 스터디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신입 부원도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봉사를 진행할 때는 수업진행자, 보조선생님, 총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원들끼리 나눠서 맡게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 및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 및 자료구조 스터디 동아리입니다. 취업 준비 시 코딩테스트 전형 대비를 위해 백준, 알고스팟, 프로그래머스 등의 사이트에서 문제를 선정하고 다같이 모여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등의 스터디 활동을 합니다. 문제를 다 풀고난 후에는 왜 그렇게 풀었는지,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등의 의견을 나누면서 정리합니다. 서로 풀었던 문제는 깃허브에 올려서 코드리뷰를 진행하고, 이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또한 책을 하나 정해 서로 한 챕터씩 피피티로 정리해와서 발표하는 등의 자료구조 스터디 활동을 합니다.





# 17

##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이 궁금하다면 드루와!!!

Part 2  
자연 계열

## 자연과학이 궁금하다면 dru와!!!

▶ 오형진, 송현수, 최락천, 김유빈 장학생

### Q1. 자연과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 인가요?

• **식품영양학과:** 식품과 영양에 관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배워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건강한 식품의 제조, 가공분야, 인류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 **산림과학부:** 산림과학부에서는 임업과 임산업, 녹지 및 공원관리 등 숲과 나무를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목재 및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전공은 숲 생태계에 대한 이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환경경영, 휴양 및 정책 등을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료과학전공은 목재, 펄프·종이,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물리적, 화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활용에 관하여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바이오발효융합학과는 발효식품으로부터 건강 및 의학적 효능을 가진 새로운 기능성 바이오식품 소재 및 바이오 의약소재를 발굴하여 그 기능성과 효능을 규명하고 산업화를 추진하는 첨단 학과로 녹색성장과 국가 신성장동력 정책과 연계된 바이오융합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Q2. 자연과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 **식품영양학과:** 우리 학과에서는 영양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영양교사, 산업체 영양사, 임상영양사, 기업 영양사, 홍보 영양사, 보건소 영양사 등 다양한 분야의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기업에서 마케팅,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의 직무에도 진출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여기에 R&D, 연구직 분야가 추가되게 됩니다.

• **산림과학부:** 졸업생들은 학부 졸업 이후 기술고시 및 7급 공무원시험을 통해 산림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관련 부서로 진출하고 있으며, 합판, 마루, 펄프, 제지 등의 목재관련 산업체와 해외임업개발업체(해외 조림), 산림조합, 임산물무역업체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학위 취득 이후에는 국립수목원 혹은 사설식물원, 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 일반기업 등에 진출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우리 학과는 생명현상을 다루는 학과인 만큼 대학원 진학률이 50%가 넘습니다. 진출 분야는 제약, 식품분야가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대부분 R&D(연구개발직)으로 직업을 삼게되고,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으면 영업직, 생산직, 생산관리직 등 다양한 직무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 Q3. 자연과학과에 입학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식품영양학과:** 우리 학과의 장점은 다른 학과에 비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점은 성비가 여학생이 앞도적으로 높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 성비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 것 보다 반반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산림과학부:** 산림과학은 산림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학문으로 산림,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이 가능하며 추후의 진로 역시 다양합니다. 단점으로는 연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보통 요구되며 국제기구의 경우 유창한 영어실력과 전공지식이 필요하기에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생명과학 즉, 바이오분야는 원래부터 전도유망한 분야였지만 이번 COVID-19 팬데믹 사태로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더욱 기대가치가 더해진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복잡하고 심도깊은 현상들을 다루는 학문이라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 Q4. 자연과학과에서는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 **식품영양학과**

① 조리사 자격증: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제과, 제빵, 복어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한가지 정도만 취득하면 좋습니다.

② 식품기사: 4학년 재학 중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실기와 필기로 나누어 집니다. 필기는 범위가 방대하지만 문제은행과 같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어 어렵지 않게 합격 할 수 있지만 실기는 최근 100% 필답형으로 변경된 이후 저조한 합격률로 공부에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 **산림과학부:** 4년 재학 이후 산림기사, 생물분류기사 등의 기사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산림기사의 경우 학부 교과과정 내 수업범위와 중복되어 부담이 크지 않으며 각종 공공기관 취업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실험을 진행하면서 얻은 실험 데이터들을 정리, 계산 할때 엑셀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Q5. 자연과학과에서 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은 무엇인가요?

• **식품영양학과:** 여러 외식 업체와 식품 기업에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 비비고 프렌즈, 오투기 푸드 에세이 공모전, 에머이 서포터즈 등

• **산림과학부:** IUFRO(국제임업연구기관연맹),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발효과는 한학년에 40명정도로 인원이 적은 소수과입니다. 그래서 따로 진행하는 대외활동은 없지만 학과 자체에서 2주에 한번씩 바이오 관련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 지식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Q6. 자연과학과는 어떤 과 동아리 활동이 있나요?

• **식품영양학과:** RCY라는 봉사동아리가 있어서 보건과 영양 관련된 봉사를 진행하면서 스펙 쌓기와 봉사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산림과학부:** '나무지기'라는 학술동아리가 있습니다. 산림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로 IFSA(산림분야학생연합)의 서울대 지부입니다. 식물에 대해 배우고 산림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과 동아리는 따로 없으며 마음 맞는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아리는 아니지만 다양한 학과행사를 진행하면서 과에 소속감을 느끼며 학과 학생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조직인 학생회가 존재합니다.

## Q7. 자연과학과에서 응시할 수 있는 국가고시는 무엇인가요?

### • 식품영양학과

① 위생사: 2학년을 수료한 이후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그동안 배운 전공에 환경과 위해 곤충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지지만 한번에 시험을 치르며 사실상 필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영양사: 4학년 12월에 졸업예정자가 되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4년동안 배운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격률은 생각보다 높은 편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붙을 수 있는 난이도라고 합니다. 위생사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응시 가능합니다.

• **산림과학부:** 임업직공무원(5급, 7급, 9급) 시험을 통해 공무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공지식을 시험하며 산림기사 가산점이 있기에 유리한 시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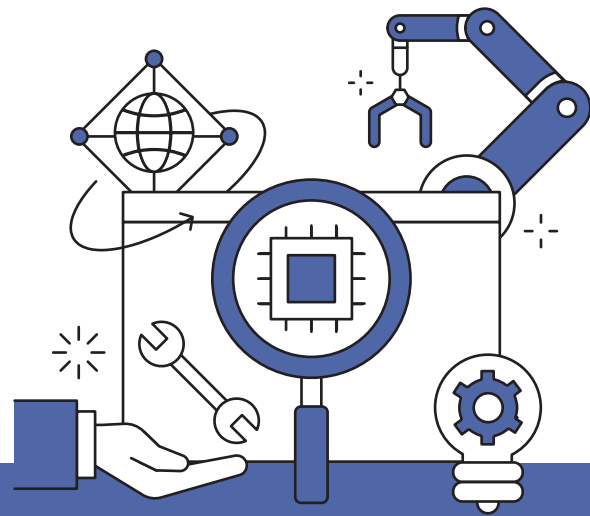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따로 정해진 졸업요건은 없지만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할 때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사자격증의 종류로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품질경영기사등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시에는 자격증이 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Q8. 자연과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 **식품영양학과:** 우리 학과에서는 문과적인 과목도 있지만 이과적인 과목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때 이과를 나오는 것이 쉽게 전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과 생명과학 과목의 연장선에 있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림과학부:** 과학에 더해 공학, 경영, 경제학을 배우며 일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기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분야 특성상 필드에 나가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체력과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영업직을 제외하고는 실험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이 많습니다. 생명현상관련 실험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공관련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실험적 호기심, 끈기가 없다면 실험 성공확률이 떨어집니다. 바이오분야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으므로 자신과 맞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8

##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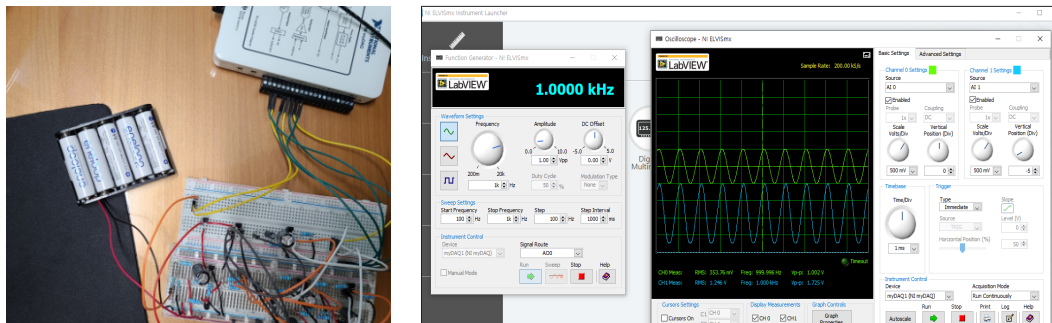
Part 2  
자연 계열

## 전기전자공학과의 모든 것!

▶ 김○림, 오○엘, 임○훈 장학생

### Q1. 전기전자공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전기전자공학과는 회로, 전력, 반도체, 통신, 신호처리 등에 관한 학문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물리학, 화학 등의 학문을 베이스로 트랜지스터와 같은 전자소자를 다루는 전자회로의 이론 및 설계, 디지털 논리회로의 이론 및 설계, 전자기장을 다루는 전자기학, 다이오드, MOSFET, BJT를 다루는 반도체 소자, 메모리, 낸드플래시, 디스플레이 등을 다루는 반도체 공학, 각종 신호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 신호처리,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통신공학, 디지털통신, 데이터 통신과 같은 과목을 주로 배웁니다. 또한,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기기와 같은 전력에 관한 학문도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에 다양한 실험 및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이퀄라이저 회로를 실제로 브레드보드에 구현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값을 확인하는 실험 사진입니다.



### Q2. 전기전자공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전기전자공학과는 분야가 다양한 만큼 진로도 정말 다양합니다! 심화전공에 따라서 반도체, 전기/전력, 나노 기술, 통신, 신호처리, 컴퓨터, 바이오/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전공을 살려 취직하길 원한다면 흔히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과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도 가능하고요. 전공을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계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고시에 기술직 전기 직렬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살려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전공을 살린다면 반도체 공정 연구원부터 앱 개발자까지 무궁무진한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변리사 시험 등 진로는 다양하니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천천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요즘은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을 많이 진학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 Q3. 전기전자공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전자공학과는 배우는 분야가 넓은 만큼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에 관심은 있지만 분야를 확실히 정하지 못했더라도 대학 진학 이후에 전공필수 과목을 들으면서 심화적으로 세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정말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중 하나는 흥미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점은 그만큼 전공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들지만 모두 어려워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과제가 무척 많다는 것 역시 단점이지요. 아무래도 많은 전공과목이 열리다 보니 대학교 학부 4학년으로 전공을 마스터했다기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원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Q4. 전기전자공학과와 세부 분야는 어떻게 나뉘지나요?

전기전자공학의 세부 분야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공학, 통신공학 등이 있습니다.

- **전기공학:** 전기에 관련된 기술 및 응용에 관한 내용을 연구합니다.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전력전자, 전기철도/차량, 전기 에너지 시스템 등을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 **전자공학:** 전자의 흐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컴퓨터 프로세서 등에 대해 배웁니다.
- **제어공학:** 제어이론에 기반하여 로봇 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인공지능형 로봇, 공장의 생산용 로봇, 의학용 로봇, 초소형 로봇 등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리를 연구합니다.
- **통신공학:** 전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유선 및 무선 통신 방법을 연구합니다. 유무선 통신 회로, 측정과 원격제어, 전자기파를 응용한 기기 등의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Q5. 전기전자공학과에 입학하려면 어떤 과목이 중요한가요??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 선택하면 영어, 수학, 물리가 가장 중요해요. 대학 공부에서 영어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전공 책은 원서와 번역본으로 나뉘어요. 번역본은 한글이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 번역된 것도 많고 한문 등으로 인한 가독성이 떨어져 원서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원서 영어가 어렵지 않으니 기본적인 해석 능력만 갖추어도 원활하게 읽을 수 있어요!

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프로그래밍, 전자회로, 전자기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넓은 내용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진로도 넓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즉, 갈 수 있는 회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기전자공학 전공과목들을 원활하게 수강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미적분, 벡터 등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안 배웠다면 독학으로라도 한 번씩 공부하는 것을 권장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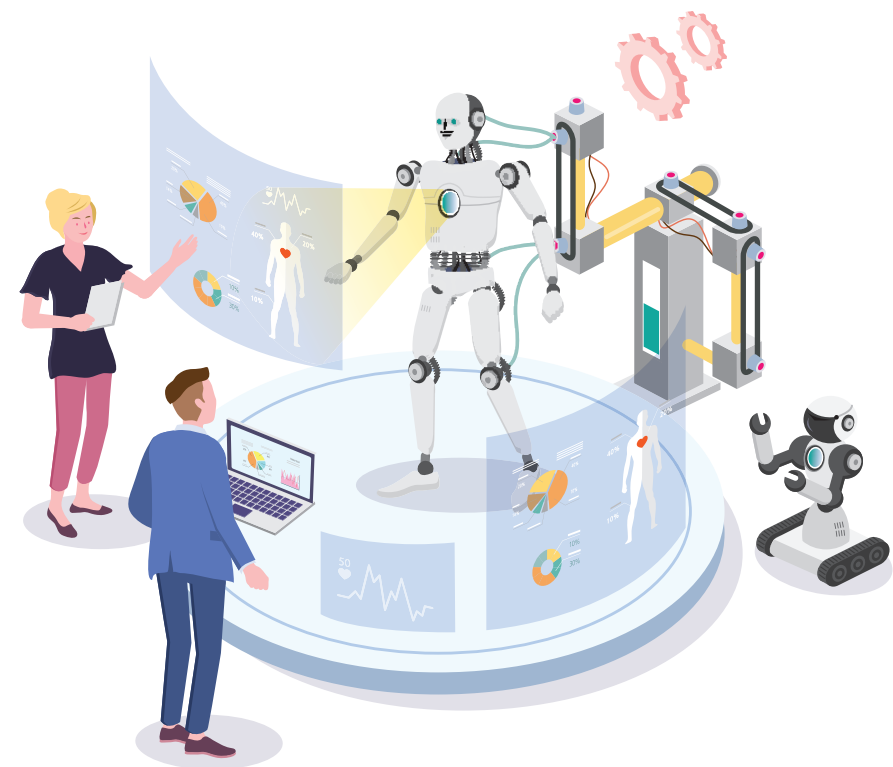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수학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물리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대학교 오기 전에 물리1, 물리2를 공부하고 오면 대학교 1학년 때 매우 편하게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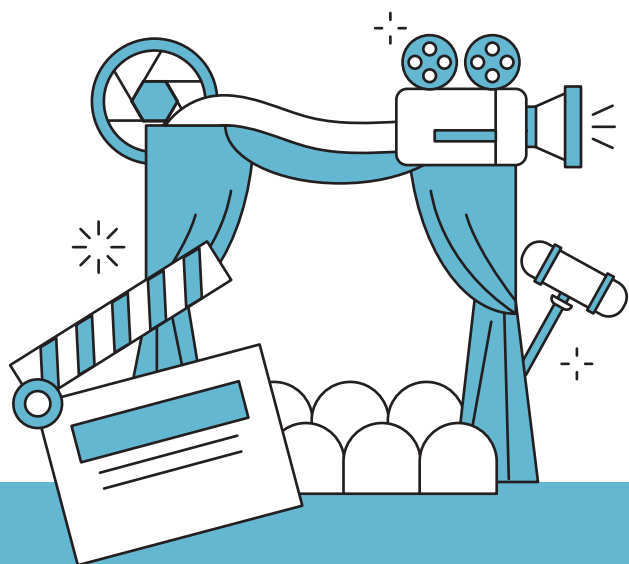
## Q6. 전기전자공학대에 가고 싶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김○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재밌게 공부하고 회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 전공을 선택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전공 공부가 힘들 때가 있어도 절대 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꼭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땐 심화 분야가 다양하다는 정도만 알고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Q&A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엘: 전기전자공학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보다 배울 것도 많고 가는 방향도 제각각입니다. 덕분에 방향을 바꾸면서 다양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대에 진학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들어와서 방향을 바꾸면서 자신에게 맞는 목표로 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과목이 계속 연계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 지금 배우는 미적분과 과학 과목을 잘 준비하셔서 뿌리를 깊게 뽐으시길 바랍니다.

임○훈: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꼽히며 신재생 에너지 또한 미래 에너지로 전망이 좋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으로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 취업률이 이공 계열 중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학문적으로 발전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공계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9

## 공연학부

궁금한게 있다면 다 알려줄게!

Part 3  
예체능 계열

## 궁금한게 있다면 다 알려줄게!

▶ 김예진, 김가연 장학생

### Q1. 공연학부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 **연극영화과:** 배우 양성을 목표로 연극, 뮤지컬, 영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매 학기 연극 제작 실습 공연을 올리며 전공 수업으로는 무용·노래·연기 수업이 있어요.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어요.

• **무용학과:** 무용이론에 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실기도 배우는데요, 한국·서양 무용사의 이론뿐만 아니라 무용기획에 필요한 무대 디자인들에 대해서 배움과 동시에 전통, 신무용, 창작무용, 타악무용 등 다양한 춤을 배우고 더 나아가 ‘안무법’, ‘무용연기’ 등의 수업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재학생들이 직접 안무 및 연출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워요.

### Q2. 공연학부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 **연극영화과:** 학과와 제일 관련이 큰 진로는 배우예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교 교수나 자격증을 취득해 연기 강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 학원을 차려 연기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연영 전공 학생들은 매 학기 공연을 준비하며 직접 무대를 만들고, 스텝(기획, 음향, 조명, 의상, 분장 등)을 맡아 참여하게 되는데 공연을 경험하며 스텝 분야로 진로를 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관련 진로로는 작가, 감독, 방송 스텝 등이 있어요.

• **무용학과:** 관련된 진로에는 무용단에 들어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교 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강사, 사회문화기관 등 지도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진로가 있고 무용의상, 무대조명, 무용음악, 무용영상 등 기획과 경영 분야, 문화관련 단체 및 기관운영 등등 다양한 진로도 있어요. 이 중에서 무용단이라는 프로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워너비이지만 무용가, 안무가, 지도자 등 다양한 방면의 진로가 많다 보니 어느 분야로 더 진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정말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 Q3. 공연학부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연극영화과:** 중·고등학생 때 경험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수업들과 전공 심화 과정을 배울 수 있고 같은 전공인 학생들과 공연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인문고교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은 입시 학원에서만 연기를 해봤기 때문에 단체로 공연을 준비하거나 상대와 호흡을 맞추는 일이 거의 없는데 학교를 오면 같은 전공인 학생들과 다양한 작품들을 공부하고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젊은 연극제와 같은 다양한 연기 대회도 참여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교 시스템에 따라 배우는 과목이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과 특성상 공연을 주로 학기마다 올리다 보니 개인 시간이 없어요. 공연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침 일찍 모여 새벽까지 연습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르바이트와 과제의 어려움이 있어요.

• **무용학과:** 실기뿐만 아니라 분장, 의상, 음악, 조명 등의 다방면인 것들을 보다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어서 진로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점으로는 전공 규정 수업으로 인해 타과생과의 교류가 부족하고 공연 연습이 많다 보니 학교 내에서 하는 행사 등에 참여를 많이 못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외 부활동 및 공연이 눈치 보여서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 Q4. 공연학부와 관련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연극영화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졸업 조건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교양수업으로 수강하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받는 문화예술사 자격증은 2급이에요. 학교 졸업 후 방과후 수업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문화센터 강사로 수업할 수 있어요.

• **무용학과:** 무용지도사, 한국무용지도사, 발레지도사, 공연예술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각 자격증별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학교 특기적성, 동아리 모임),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수업할 수 있어요.

### Q5. 공연학부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연극영화과:** 저는 예고를 나와서 학교에서 입시를 준비했어요. 입시를 함께할 선생님을 결정하고 방과후 수업으로 신청해요. 특기로 가져갈 노래와 무용 작품을 준비해요. 시험 질의응답 때 간혹 다른 특기도 볼 수 있나는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준비해 가는 게 베스트예요. 대학교 모집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일 대사로 낼 작품들을 공지한 곳이 있는데 작품을 찾아 분석하고 작품 안에서 나올 것 같은 독백을 예상으로 발췌해서 연습했어요. 또, 젊은 연극제(개인), 서경대 모노로그 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참여 했어요. 대회가 보통 대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소가 입시 시험장과 같아요. 시험장의 크기나 시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 **무용학과:**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작품으로 모든 대학교 공쿨에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심사하시는 대학교 교수님들께 저를 인식 시킬 수 있고 공쿨장과 실기 시험장이 같은 학교는 미리 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며 실력향상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입시는 다 아침 일찍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찍부터 연습하는 것을 습관을 두어 몸에 익혔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연습을 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남들보다 두 배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 Q6. 학교 다니면서 중요한 건 어떤 것이 있나요?

• **연극영화과:** 수업 열심히 참여하고 특히 매 학기 있는 공연은 꼭 참여하세요. 과대, 부과대 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성적 관리는 필수로 해두는 게 좋아요. 꿀팁으로는 학교 입시 스텝을 뽑는데 2학년부터 입시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어요. 임금도 받고 입시 구경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로 장학생도 해당 되면 꼭 신청해서 하고요. 학교 축제, 동아리 활동, 공연, 체육대회 등 마음껏 즐기고 경험하세요. 개인적으로 영화, 연극, 뮤지컬 장르 제한 없이 공연을 많이 보고 기록하세요. 연기, 노래, 무용 연습도 필수예요.

• **무용학과:**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잘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학생회장이나 과대 같은 학생회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름을 기억하실뿐더러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게 되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마냥 학교를 열심히만 다니기보다는 학교 수업 이외에 하는 레슨을 받아 콩쿨을 나간다거나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배우며 자기개발을 하면서 학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Q7. 전공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 **연극영화과:** 매 학기 공연을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전공 특성 상 팀플 중심으로 가는데 특이나 공연을 준비하게 되면 준비 기간동안 매일 붙어 있거든요.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한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끊임없이 부딪혀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작품과 서로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필요하지만 감정 소모가 엄청납니다. 학생 연출을 하게 되면 인류애가 없어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 **무용학과:** 창작발표회에 작품을 올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무 및 음악, 조명, 소품 등 작품 하나를 공연에 올리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전문가에 의해서 따르기만 했지,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동기들 서로의 의견이 다 다르기에 하나로 의견을 정하기 어려웠고 많은 갈등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 Q8. 어떤 학생들에게 공연학부가 적합한가요?

• **연극영화과:** 연기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특성상 팀워크와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인내심,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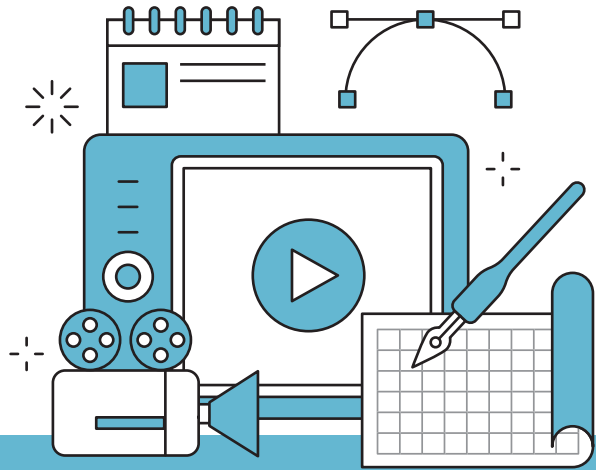
• **무용학과:** 무용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권유로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력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이 생기게 되고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군무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무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성실한 사람이 적합한 것 같아요.



<연극영화과>



<무용학과>



# 20

## 문예콘텐츠창작학과

전공만 22과목을 들은 4학년이 알려주는,  
문예콘텐츠창작학과에 대한 모든 것!

Part 3  
예체능 계열

## 전공만 22과목을 들은 4학년이 알려주는, 문예콘텐츠창작학과에 대한 모든 것!

▶ 김리나 장학생

### Q1. 문예콘텐츠창작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문예(문학)에 관한 기초, 문화콘텐츠, 시와 소설과 시나리오를 쓰는 법, 영상 제작에 관한 것을 배워요. 이렇게 보니 굉장히 다양한 것을 배우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예를 기반으로 한 세부 장르들로 뿔어 나가는 것이지요. 학과 수업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그 토대인 시나리오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결국 문예 및 스토리와 관련된 것을 배우는 학과라고 볼 수 있어요.

### Q2. 문예콘텐츠창작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출판 관련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문학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출판 계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콘텐츠 관련 일도 많이 하시는데요, 방송 작가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 일에도 열려 있는데요, 대기업의 게임 시나리오 작가를 학생들에게 적극 권유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 Q3. 문예콘텐츠창작학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으로는 문학 전반과 그 세부 장르인 시, 소설, 시나리오 등을 좋아한다면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과제가 많은 편도 아니고, 창작 수업이 많다보니 암기 위주의 시험을 치는 것보다 대체 과제로 시나 소설 등을 창작해오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시를 쓴 결과물을 제출하고 시험 대신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미리미리 써두고 착실하게 해둔다면 공부에 크게 부담은 없어요.

다만 단점으로는 대중문화 쪽에 익숙하고 그쪽의 창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오면 크게 당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와야 되고 수업도 순수 문학 소양을 기르는 쪽으로 좀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Q4. 문예콘텐츠창작학과에서 배웠을 때 가장 재밌었던 과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22과목의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재밌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였어요. 저는 문학이 너무 좋았고 그 역사를 파헤치면서 어떤 사상과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아는 것도 좋아했는데, 문학을 포함해서 예술의 흐름이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해주는 과목이었어요. 진짜 재밌어서 수업이 없는 날이면 언제 올까 기대했답니다. 두근거렸어요.

### Q5. 문예콘텐츠창작학과에서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문제작가와 서사전략’ 과목을 배울 때였는데요. 이 때는 2020년 2학기였는데 한창 코로나가 극성일 때였어요. 온라인으로 배우는데 오프라인보다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할 때라 공부에 온전히 힘을 쏟기가 힘들었어요. 매주마다 소설을 길게 읽어야 하는 과목이었는데 따라가기가 참 벅찼던 기억이 나네요. 단편소설을 하나하나 매주 읽어야 했는데,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 Q6. 문예콘텐츠창작학과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의 내년 모집 요강을 보니, 저희 학교의 문예콘텐츠창작학과는 수시를 선택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올 수 있네요. 정시도 있습니다. 저는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왔어요.

문예 자율동아리의 부장을 맡아서 활동했었고, 독서 기록을 많이 쌓았으며, 문예 영재도 이수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점학교(학교 연합 방과후 개념)에서 문예 거점학교 여러 개를 다녔고, 국어 과목을 신경 썼었어요. 국어 시간에 활동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구요.

학교에서 국어, 문학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성적도 신경쓰고요. 이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분야를 챙기면 됩니다. 저는 문학을 너무 좋아했어서 이게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문예콘텐츠창작학과가 읽으시는 분의 좋아하는 분야여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네요.

### Q7. 문예콘텐츠창작학과는 어떤 사람이 가면 좀 더 잘 맞을까요?

문학(시나리오까지 포함)과 창작을 좋아하시는 분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아니면 잘 맞기가 힘들고,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배우는 게 운동 문학에 대한 기본 이론이고, 창작을 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과제가 모두 창작과 관련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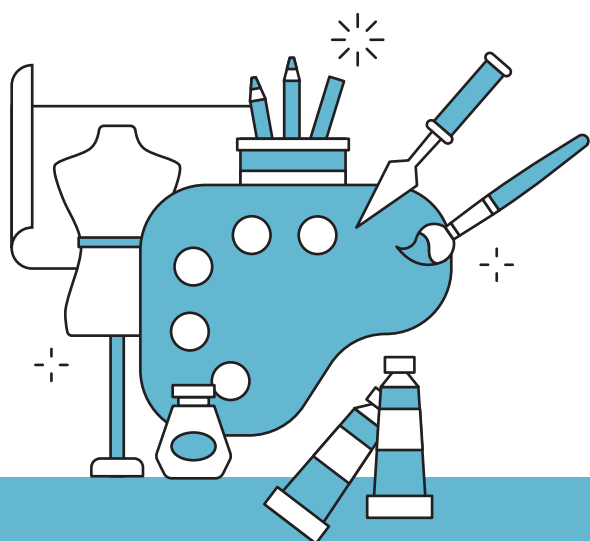
예를 들어 제가 들은 소설 수업은 한 학기에 대략 5편의 단편소설을 읽고, 평을 하고, 단편소설을 하나 써 낸 다음, 고치는 것 등의 과정을 했었어요.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문학을 좋아하시고, 글로 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여야 해요.

### Q8. 고등학교 때 문예콘텐츠창작학과를 가기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준비할 게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 대학 입시를 치르신다면, 이때 변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2022, 2023년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도 중요하답니다. 문학(시, 소설, 시나리오) 위주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소설 자율동아리의 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독서 활동도 대입에 반영되므로 열심히 읽어주셔야 해요. 자기소개서는 2024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2022-2023년의 입시생이시라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과 국어 관련 과목의 적극적인 학습 활동(과목 내에서 여러 가지 하는 활동이 있죠)으로 세부능력특기사항도 열심히 채워주셔야 합니다. 국어 성적은 당연히 신경써야 하고요. 이와 같은 노력을 하셨고, 문학을 사랑하시며 꿈이 명확하시다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 21

## 미술학부

유퀴즈 온 더 아트

Part 3  
예체능 계열

## 유퀴즈 온 더 아트

▶ 이수, 김늘푸름, 서하니 장학생

### Q1. 미술대학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수:** 그림 그리는 행위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것을 일찍 알게 되어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자연스럽게 전공을 골라, 동양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늘푸름:**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만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교사를 준비했지만 3학년 진학 당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의상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서하니:**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진로는 정하지 못한 채 학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미술 거점학교를 시행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미술 진로에 대한 관심과 기회가 생겼고, 그중에서도 영상 디자인에 흥미가 있어 디자인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Q2. 미술대학 각 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 **동양학과:** 수묵화와 채색화 그리고 동양미술사를 위주로 회화작업, 판화 작업 등 다양한 회화를 그리고 재료 연구 및 서양미술사와 현대미술사와 같은 미술사에 대해서 토론하며 공부합니다.

• **의상디자인과:** 의상디자인학과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상학과 의류학과 패션 디자인학과처럼요. 대부분은 학교마다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에 따라 이름이 나뉘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 의상디자인과는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과이며 패션드로잉테크닉, 드레이핑, 패턴과 함께 패션산업과 마케팅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시각디자인과:** 우선 제 학교의 디자인학부는 시각디자인과와 산업디자인과로 나뉘는데, 입학 후에 바로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디자인과에는 그래픽, 영상, 3D, 일러스트레이션, 광고, 브랜딩, 타이포그래피, 사진 등 여러 세부 전공이 있어요. 저학년은 모든 분야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필수로 지정된 기초 수업들을 위주로 수강하고, 고학년은 전공 필수 수업과 함께 각자 원하는 분야의 심화 수업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Q3. 가장 재미있던 수업은 무엇인가요?

**이수:** 작년에 판화 수업에서 했던 실크 스크린이요! 판화는 아무래도 필요한 재료들과 기계들이 많으니 쉽게 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학교에 판화 전공수업이 있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섬세하고 예민했던 작업이라 고생을 해서 그런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화는 에디션을 많이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연말에 지인들에게 선물했는데 다들 좋아해주셔서 저 또한 좋았습니다.

**김늘푸름:** 니트 디자인 수업이었습니다. 직물을 짜는 원리를 배우며 뜨개질로 편물을 짜고 의류를 만드는 수업이었는데, 원래 취미로 하고 있던 뜨개질을 더 깊게 배울 수 있어 정말 재미있게 수업했습니다.

**서하니:** 피지컬 워크숍 수업입니다. 디자인과의 경우 고학년이 될수록 드로잉, 기초 입체 등의 실기 수업 비중은 줄어들고 주로 노트북으로만 작업을 하게 되는데, 피지컬 워크숍은 디자인을 물질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이라 경직된 사고에 전환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재질의 종이, 아크릴 판, 나무, 천 등 자신의 디자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재료를 찾고 그 물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즐거웠어요.

### Q4. 미술대학을 나오면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나요?

**이수:** 작가, 미술교사,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미술대학 교수, 비평가, 평론가, 컬렉터, 아트 딜러, 타투이스트, 칼러리스트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술 관련 직업은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전업 작가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김늘푸름:** 의상디자인과 학생들이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는 직업은 패션 MD입니다. 이 외에 패션 디자이너, 패턴사, 패션 브랜드 마케터, 매거진 에디터 등등의 직업을 가지거나 직접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하니:** 시각디자인과에는 그래픽, 영상, 3D, 일러스트레이션, 광고, 브랜딩, 타이포그래피, 사진 등 여러 세부 전공이 있는 만큼 졸업 후 진로도 매우 다양합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거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하고, 기업의 마케터,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또는 브랜딩 디자이너 등으로 일하기도 해요. 또한 독립출판사를 설립하거나 영화감독, 광고 아트디렉터 등이 되기도 합니다. 한계 없이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각디자인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도 열린 사고를 지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 Q5.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수:** 동양화와 분만 아니라 회화과에 진학하고 싶다면, 저는 기초가 탄탄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실기 시험 유형이 다르긴 하지만 문제 제출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연습과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실기는 나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주고 단점은 숨기며, 의도에 맞게 ‘잘’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문제에 대해 많은 에ски스를 그려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았고 드로잉 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인물과 사물, 구성과 조형력 등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많이 접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연습하다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속도도 빨라 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는 인체다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연스러워 보여야 합니다. 인체구조를 ‘암기’하는 것 보단 ‘이해’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기도 실기지만 수능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미술은 실기와 공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전공이라 많이 힘들겠지만, 미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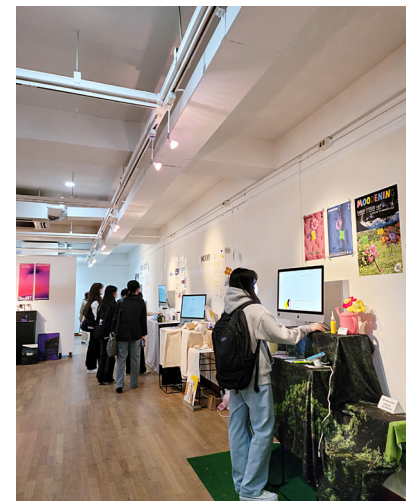
<동양화과>

**김늘푸름:** 의상디자인과는 학교마다 이름도, 중점적으로 배우는 부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과대도 자연대, 예술대, 인문대로 정말 다양합니다. 단과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른데, 예술대는 실기를 중점적으로 보며 자연대나 인문대는 일반적인 전형으로 실기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시나 실기가 아닐 경우 해당 학교와 학과에 인재상에 맞게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상디자인과>

**서하니:** 시각디자인과 진학을 위해서는 디자인 전반에 대한 폭넓은 배경지식을 갖는 것과 본인 관심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며 다양한 시각 물을 눈에 익히는 것도 좋고, 디자인 잡지를 구독하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구독 디자인 잡지로는 <BranD>를 추천해요. 이 잡지는 각 이슈마다 하나의 주제를 다방면으로 탐구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고, 좋은 디자인을 눈에 익히는 동시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모든 텍스트가 영어로 되어있거든요! 잡지를 들고 다니며 읽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디자인 분야의 국내외 기사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지식을 넓히다 보면 본인의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후 대학 입시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좋은 소재가 될 거예요.



<시각디자인과>

## Q6. 창작 작업 시, 노하우가 있나요?

**이수:** 저는 시각에 자주 자극을 주려 노력합니다. 계속 같은 이미지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많은 전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느끼고 그것을 기록하려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더라도 주변 친구들, 선배들 또는 선생님들께 피드백도 받으며 작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곤 합니다. 작업에 자신이 없다고 그런 자리를 피하다 보면 너무 우울 안 개구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작업하는 주제의 책을 읽기도 하고, 미술 전공이 아닌 타 전공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며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 ‘시선’과 ‘생각’에 최대한 노출이 되고 그것을 빨리 그리고 많이 흡수하는 노력이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김늘푸름:** 사실 창작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새로운 것도 창작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고 꾸준히 패션부터 영화나 사진 음악 자연물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 좋은 테이스트를 가져야 합니다.

**서하니:**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때는 아무리 고민해도 좋은 영감을 얻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있기 보다 어디든 돌아다니는 것이 좋더라고요. 유행하는 핫플레이스에 가기도 하고, 미술 전시를 보러 다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반면 주변 환경의 전향보다 지식이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특히 사회 이슈를 다루는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기사나 논문을 찾아보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 22

## 음악학과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 음악과로 모여라!

Part 3  
예체능 계열

##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 음악가로 모여라!

▶ 박신정, 선혜지, H장학생

### Q1. 음악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 인가요?

• **작곡과:** 서양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음악어법 및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창작 연습을 통하여 작곡가에게 요구되는 작곡적 사고와 기술적 연마를 습득시키는 학과입니다. 또한 작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용음악, 영상음악, 무용음악, 컴퓨터음악 등 필요한 여러 가지 음악훈련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서양악기 및 국악기의 연주기량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합니다.

• **음악학과:** 음악학과는 개인 전공별로 세분화된 실기 수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공 실기 수업 및 전공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 경험을 쌓고 실제 연주를 통해 음악적 기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피아노, 비전공자성악수업 등 본인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세부 전공의 실기 수업도 배움이 가능합니다. 서양음악사, 기초음악이론, 화성, 악기론 등 음악이론의 단계별 수업을 배웁니다. 음악적 표현, 음악 이론적 해석 및 악보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본적 소양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는 대중음악에 대해 배우는 곳입니다. 기존 곡들을 분석, 해석하며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나의 음악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대중음악의 역사와 여러 장르를 공부하며 장르에 따른 리듬, 가락, 화성 등을 배우게 됩니다. 연주(보컬, 악기)와 함께 작곡, 작사, 편곡, 레코딩, 컴퓨터 음악 등 다양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 Q2. 음악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 **작곡과:** 음반 제작 회사, 음악 기획사, 전문 공연장, 음악 관련 출판사, 악기 제작사, 음악 학원 등이 있으며 유학에 가거나 레슨 강사가 되는 길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학교 재학 중 음악 제작 회사 창업을 했습니다.

• **음악학과:** 해외유학 및 대학원 진학, 전문 연주자, 합창단원, 오케스트라 단원 및 반주자, 오페라 및 뮤지컬 연주자, 영화 및 방송, 공연기획 등의 관련분야, 문화센터 및 학원 지도자 등이 있습니다. 주로 해외 유학과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며 합창단원 오케스트라단원 및 반주자로 진출을 많이 합니다.

•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이라는 이름처럼 음악이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기에 관련된 진로 또한 다양합니다. 연주자,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음향 엔지니어와 함께 공연에 관련된 음악감독, 공연기획자 등이 있구요. 영화, 드라마

마, 방송, 광고, 게임 등 미디어 음악 분야와 학원 강사, 악보제작,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있습니다. 많이 진출하는 분야도 다양한데요. 예전에는 무대 연주에 좀 더 비중이 컸다면 요즘은 유튜브에 연주, 작곡, 편곡, 영상 음악, 음악교육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음악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고 사운드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넓어진답니다.

### Q3. 음악과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작곡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곡과는 음악대학 중 가장 진출 분야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곡을 들어도 분석이나 잔지식(?)이 많습니다. 음악에 대해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학과입니다.

단점이라하면 모든 음악과들과 같은 단점인데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돈을 한 푼도 못 벌 수 있는 게 음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음악하시는 분들이 편안히 음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음악학과:** 음악학과의 장점은 자신의 세부 전공에 따른 맞춤 수업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들도 배움이 가능하며 전공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음악기초과목, 음악이론을 통해 여러 가지 음악적 소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연주 실력을 향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감 상승, 같이 연주를 준비하는 학우들과의 협동심이 증진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진로 설계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다면 대학 졸업 후에 방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져있더라도 실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 **실용음악학과:** 장점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음악을 배우고 진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기 수업을 통해서 음악적 실력이 점점 발전되는 것이 부뒹합니다. 기존 뮤지션의 곡만을 연주했었는데 공부를 통해 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 연주나 작곡에 대한 피드백을 나눌 일이 많기에 멘탈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음악은 범위가 상당히 넓기에 공부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주뿐만 아니라 스스로 작곡도 할 수 있어야겠구나...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 Q4. 음악과에 진학하고 싶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 **음악학과:** 자신의 세부전공 실기시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수시지원이라면 내신 성적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정시지원이라면 수능 성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준비해야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입시요강을 찾아보고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찾아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봐야합니다. 음악 전공에서 제일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의 실기 실력입니다. 그러니 꼭 실기연습을 열심히 해서 실기시험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Q5. 가장 추천하고 싶은 수업은 무엇인가요?

• **실용음악학과:** 컴퓨터음악 관련 수업입니다. 미디, 사운드디자인,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등 컴퓨터음악에 대한 수업은 모두 들으시기를 추천해요. 어쿠스틱 악기라고 해도 디지털을 거치지 않으면 레코딩이 될 수 없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곡을 독창적으로 해석하며 표현하는 음악인도 좋지만 결국 내 음악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레코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협업을 하더라도 음악제작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 Q6. 진행하는 활동이나 행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 **음악학과:** 음악학과에서는 다양한 무대 연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연주회, 신입생 환영 연주회, 각 세부전공 정기연주회, 오페라, 작곡발표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학생회에서 다양한 주제로 개최하는 연주회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OST곡들로만 연주회가 개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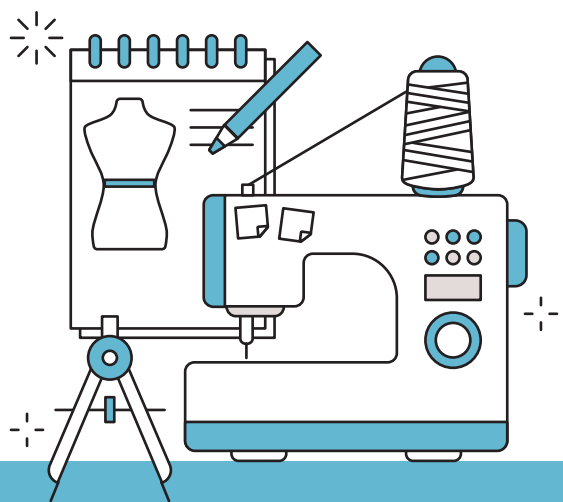
### Q7. 세부전공 변경이 가능한가요?

• **음악학과:** 세부전공 전과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피아노에서 성악으로 전과한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Q8. 복수전공 또는 교직이수가 가능한가요?

• **음악학과:** 복수전공은 가능하지만 교직이수는 불가능합니다. 복수전공은 음악 전공이 아닌 다른 단과대의 전공으로 가능합니다.





# 23

## 의류학과

의류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의류학과로 오라!

Part 3  
예체능 계열

## 의류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의류학으로 오라!

▶ K장학생

### Q1. 의류학에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의류학과에서는 복식사, 패션일러스트, 의류디자인, 플랫패턴, 드레이핑, 캐드프로그램, 섬유 과학, 스타일링, 패션마케팅, VMD, 디지털표현기법(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분야 등을 의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 Q2. 의류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경영부분 패션디렉터, 패션컨설턴트, 상품기획 및 디자인 부분으로 패션디자이너, MD, 모델리스트, 텍스타일디자이너, 니트디자이너, 소재기획 등, 영업부분으로 패션바이어, 샵마스터 등이 있습니다. 생산부분으로 프로젝트매니저, 소재컨버터, 테크니컬디자이너 등, 저널부분 패션칼럼리스트, 패션에디터, 패션유튜버 등, 판매·촉진부분 디스플레이디자이너, 아트디렉터, VMD 등이 있습니다.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능력을 펼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디자인 쪽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 제일 많은 경우는 패션 마케팅 분야로 많이 취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 Q3. 의류학에 입학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과가 가진 특성상 위 설명처럼 개인 역량에 따라 여러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점으로 많은 분야의 진출이 가능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한 학과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복수전공으로 경영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 Q4. 의류디자인학과와 의류학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의류학과와 의류디자인학과와의 차이는 입시 때부터 나뉘게 됩니다. 의류학과는 비실기 전형이고, 의류디자인학과는 대부분 실기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류학과는 대부분 이과계열이며, 생활 과학대학으로 분류됩니다. 의류디자인학과는 예술계열로 분류합니다..

학습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류디자인과는 디자인에 치중된 학과라면, 의류학과는 위 설명에 처럼 의류를 더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의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교마다

입시 방법의 차이나 커리큘럼의 차이가 상이하고 특이한 경우 졸업 전시가 없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 Q5. 의류학과에 진학 전 미리 공부해두면 좋은 것은?

입시미술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스케치할 정도, 즉 약간의 드로잉을 배워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진학 후 배우게 되시게 될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림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에 처음 드로잉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연습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 Q6. 어떤 학생들을 의류학과에 추천하시나요?

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학하시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실기의 비율이 높은 학과들의 경우 잠시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다가 밀려있는 과제를 보게 될 정도로 과제 및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업계 평균적인 임금이나 및 복지 또한 좋지 못 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학과를 선택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을 사랑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직업을 갖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제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의류학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Q7. 창작 작업 시 노하우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일상적 삶을 살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재미있는 생각이나 창작에 대한 아이디어, 재미있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핸드폰 메모에 기록해두거나, 시각적으로 자극받은 것들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영감이 자판기처럼 항상 잘 떠오르는 타입도 아니고, 창작 작업의 주제는 다를 수 있지만, 디자인하는 내가 강하게 담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창작 작업 시 한번의 멋진 작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 Q8. 의류학과에서 배울 때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패션일러스트 배울 당시 저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 미숙하기 그지없었고 주변 친구들은 입시미술을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 많았기에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림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 보다 잘 그리지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제가 잘하는 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두 번째는 저희 학과 특성상 실기 과제가 많았는데요. 잠깐 뒤돌아 동기들과의 대학 생활을 즐기다 보니 과제 마감시간에 쫓겨 야간작업을 하며, 목에 소매를 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 뒤로는 패턴 하나라도 해야할게 있으면 스스로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그날 반드시 학교에 남아서 작업을 하는 버릇을 들였고, 다시는 소매를 목에 달지 않았어요.



# 24

## 체육학부

체육대학(유도학과)를 통한 사회진출은 어떻게 될까

Part 3  
예체능 계열

## 체육대학(유도학과)를 통한 사회진출은 어떻게 될까

▶ 고혜인, 방지혜, 박혁규 장학생

### Q1. 체육대학과 유도학과는 무슨 학과인가요?

체육대학은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종합체육학과를 통틀어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과 여가 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대학은 신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실기 실습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가 전공중인 유도학과는 생활체육 유도지도자 육성 및 국내 유도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배출을 선도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유도 관련 학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전문가 양성, 생활체육 유도를 통해 우수한 유도 인재 및 지도자 양성, 한국 유도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체육지도자와 올바른 인성이 함양된 유도 전문가 인재 양성 등 생활체육 유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를 생성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Q2. 체육대학 및 유도학과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 대학의 교육 과정으로는 운동에 대한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학습하는 “항노화운동학”, 노인체육과 복지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체육복지를 탐색하는 “노인체육복지개론”, 개인의 수준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노인 체육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노인체육정책론”, 전공실기입문 과정을 위해 난해한 기술과 지도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한 “전공실기기초”,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요인과 신체 성장발달에 따른 변화 및 운동 기능의 심리적인 학습방법의 이해와 상담을 하는 “운동심리학”, 인체성장, 발육 등 운동시에 필요로 하는 영양을 분석 및 검토하는 “운동영양학”, “스포츠의학개론”, “운동처방론”, “재활모달리티” 등이 있습니다.

유도학과의 교육과정으로는 전공능력에 맞는 본 선수단 기량 향상 능력, 시범단 기량 향상 능력, 사설도장 전문가 양성 능력, 경기종목 기량향상, 지도 및 상해방지 처치 능력, 트레이닝 및 학습 발달 능력, 전공 지도자 심의(승단) 취득 능력, 각종 스포츠 지도자 자격 취득 능력, 국내 심판 자격 취득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Q3. 체육대학과 유도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하나요?

체육대학의 졸업 후 진출 분야로는 사회 체육 단체, 스포츠 센터, 병원 및 의료기관의 운동 처방 센터, 기업의 실업 운동팀 및 프로스포츠 구단, 사설체육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레저학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문화체육관광부나 각 지방단체 생활 체육 담당 공무원, 레저 이

벤트 기획 및 관리 지도자, 치료 레크레이션 지도자, 스포츠 레저 실기 지도자 등 스포츠 레저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체육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후 체육 관련 분야에 취업해 트레이너, 스포츠 마케터, ROTC,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과학 연구원, 운동처방사, 건강관리사, 체육 행정직, 경기 감독 및 코치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 중인 유도학과에서는 유도 신체교육 지도자 양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중·고등학교에서 동문 유도부 감독 및 코치직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동문들이 재직중인 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재학생들에게 교생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Q4. 체육대학 및 유도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면허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포츠레저학과, 체육학과 등 체육대학에서는 공통적으로 생활 체육 지도자,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노인 스포츠 지도자,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 경영 관리사, 운동처방사, 건강관리사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도학과에서는 2급 지도자자격증, 2급 심판자격증, 대한유도회 4단증 등 취득할 수 있습니다.

### Q5. 유도학과와 유도경기지도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도학과는 공능력에 맞는 본 선수단 기량 향상 능력, 시범단 기량 향상 능력, 사설도장 전문가 양성 능력, 경기종목 기량향상, 지도 및 상해방지 처치 능력, 트레이닝 및 학습 발달 능력, 전공 지도자 심의(승단) 취득 능력, 각종 스포츠 지도자 자격 취득 능력, 국내 심판 자격 취득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더해 유도경기지도학과는 “엘리트 유도”를 겸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유도경기지도학과에서는 엘리트 유도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유도학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 엘리트 유도선수로서 강인한 정신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국가대표 수준의 유도선수 양성, 엘리트 선수의 국가대표 우수한 유도 인재 지도 및 올바른 인성이 함양된 전문가 인재 양성 등 엘리트 유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 뿐만 아니라, 인류공영을 현대적으로 계승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와 엘리트 유도선수를 양성과 상생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Q6. 유도학과에 진학 전 미리 공부해두면 좋은 것은?

유도학과 특성상 실기학과 이다보니, 실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입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입시 기술과 낙법만 터득한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여, 실제 전공실기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실제 전공 실기는 실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력과 기술, 시합능력을 키우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7. 어떤 학생들을 유도학과와 체육대학에 추천하시나요?

저는 체육을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 및 적성을 통해 앞으로의 비전을 찾고자 하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단지 공부보다는 나를 것 같다는 애매한 각오로 와서는 설령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무엇을 어떻게 살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특기를 살려 미래에 투자해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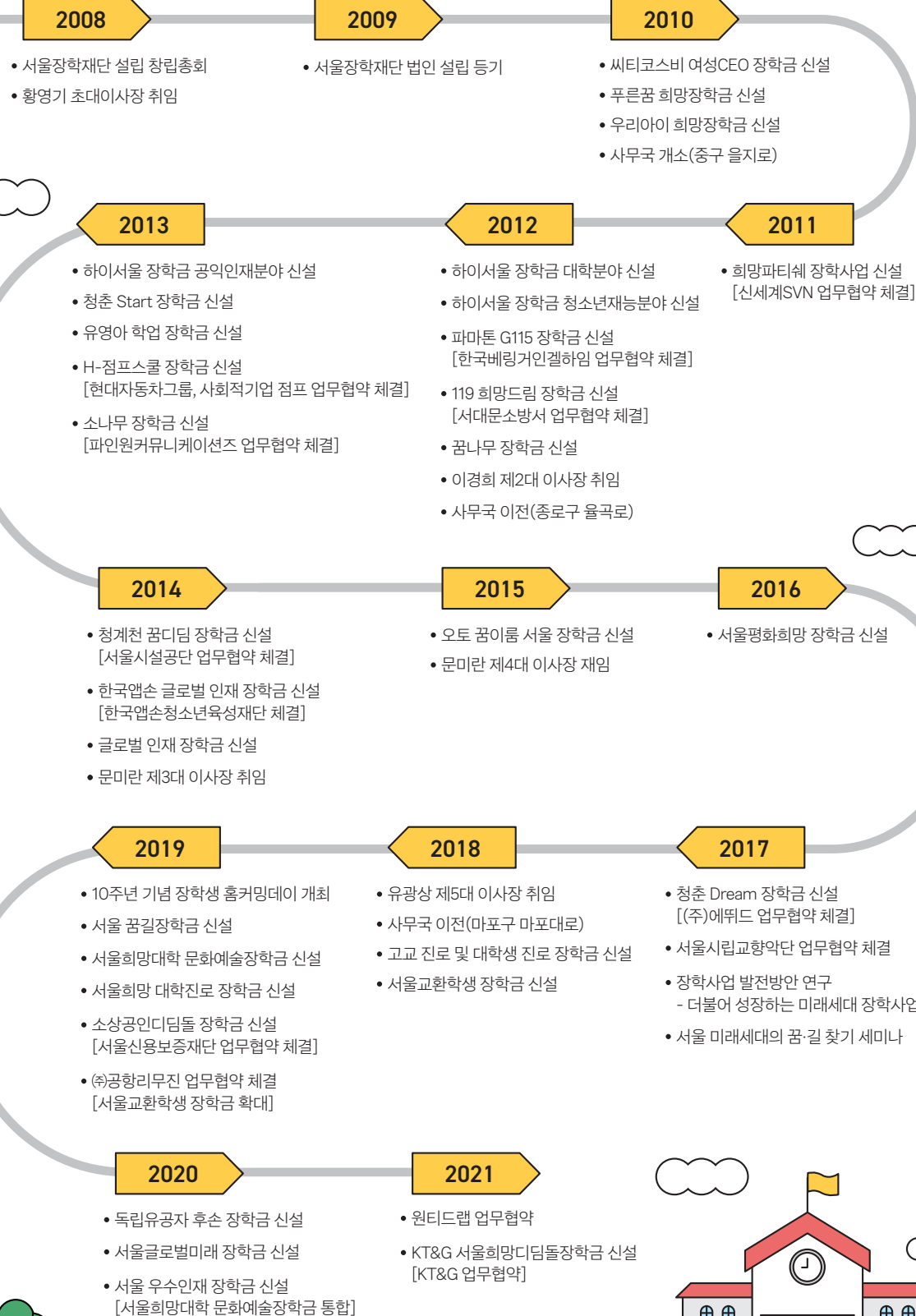
Q8. 유도학과에서 배울 때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유도학과를 전공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모든 기술을 잘 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서 모든 기술을 잘 알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 주특기 기술로만 시합하고 운동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여 지금은 그저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유도학과 제 1전공장>





## 서울장학재단 클린신고센터 안내



서울장학재단은 시민 여러분이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금품 등의 요구, 또는 청탁과 같은 부조리를 경험하셨다면 언제든지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장학재단 클린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재단 감사담당자가 직접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신고자의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내부비리, 공직자 비리, 입찰피해, 예산 낭비, 성희롱, 성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http://www.hissf.or.kr>) 클린신고센터에서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2022년 서울우수인재 장학생 전공 길잡이북

## 발행일

2022년 09월 16일

## 발행처

서울장학재단  
[07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T 02-725-2257  
F 070-4133-2258  
[www.hissf.or.kr](http://www.hissf.or.kr)

## 편집·디자인

노란들판  
T 02-469-9101  
[www.norandp.co.kr](http://www.norandp.co.kr)

©2022. 서울장학재단 All rights reserved.

본 저작물은 서울장학재단 소유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